

동아일보 시흥군 편

▶ 1922.2.24(3)5

始興에 四名季 鍔

주인을 협박해야 선오원간탈
경성이로 도망한 형제 이잇서

지나간이십 일오후별누시경에
성거도시 흥군 신동면사도리 (京
畿道始興郡新東面砂道里)에 사
는 던관조 (川寬祚) (川)의 집에 엇
던나희삼십세가량식되여백이는
정년네명이 각々 손에 권총을 가
시고 돌연히 친정입이야 그 권총으
도 주인의 가삼에 드려대이고 당
상쓰아

죽임듯이 위협하며나는
상해립시 정부원이즉 군자금업
마를 데려와 하리하여 여러가지로
협박치 앗는대 주인은 사과의 사
정을 말하고 현금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말하엿느냐 그들은 당시
늦지 아니하고 맛참내 방언들이
웃거곳 수식한 후현금 십오원선
오전을 차저가지고 즉시 어대로
사회를 감초앗는데 이 금보를 전
안 소관 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현장에 출장하야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경성으
도 도망한 형제 이잇서 으로

농서에서는 경성 각 경찰서에 토
지하는 동시에 벌금형사가 사방
에 출장하야 범인을 수색 중이라
더리

시흥에 4명 규총다

주인을 협박하야 15원을 강탈
경성으로 도망한 형 이 있서

지나간 21일 오후 12시경에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사도리에 사는 전관조의 집에 연던 나이 30세 가랑식 되어보이는 청년 4명이 각각 손에 권총을 가지고 돌연히 침입하여 그 권총으로 주인의 가슴에 드러다이고 당상 쏘아 죽일 듯이 위협하며 나는 상해임시 정부원인즉 군자금 얼마를 제공하라며 여러 가지로 협박하였다는데 주인은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현금이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말하였으나 그들은 종시 듣지 아니하고 마침내 방안을 이곳저곳 수색한 후 현금 15전을 찾기자고 즉시 어디로 자취를 감초았는대 이 금보를 접한 소관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들은 모두 경성으로 도망한 혐의로 있음을 동서에서는 경성 각 경찰서에 통지하는 동시에 방금 혐의가 사방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중이라더니

▶ 1922.3.1

始興에 五名強盜

어제 새벽 3시경에 시흥군에

오전의 강도가 나타난 사건

작아십팔일 오전 세시경에 시

각 경찰서로 통지하고 방금 대 활

홍군 동면 봉천리 사설집번디

증을 계획하고 중이라 라

(始興郡東面奉天里)에 사는 김준

여(金鏡汝)(¹⁹²²)와 집에 시골사

漢江通 어

一名逮捕

룡산서의 손에

어제 아침 여섯시에

시흥군동면 봉천리에 강도가

합은 범모와 갓거니와 작이 십팔

여전여섯시경에 봉천경찰서에

서는 소관경찰서의 농지를 막고

숙시현사가 관내에 버려서 그 범

인을 경제하든 바

밀정은 그 관내

도단의 한명을 드리며

여기에는 그들이

시흥에 5명 강도

어제 새벽 3시경에 시흥군에 5명의 강도가 나타난 대사건
작 28일 오전 3시경에 시흥군 동면 봉천리 47번지에 사는 김준여의 집에 시골사람의 모양을 차린 5명의 강도가 침입하였는데 그 중에 4명은 검은 두루마리를 입고 1명은 흰 두루마리를 입었으며 또 그들은 모두 검은 방한모를 썼는데 그들은 단도와 장난감권총으로 주인을 협박하고 돈을 내이라 하였으나 주인은 그 때마침 돈이 업셨음으로 그들은 빙안을 수색하다가 마침내 시가 7백 여원 가량의 의목 몇 십벌을 도적하여 가지고 어대로 자취를 감초았다는대 이 급보를 접한 당시 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전 서원이 현장에서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경성 각 경찰서로 통지하고 방금 대 활동을 계속하는 중이라더라

한강통에서 일명체포

어제 아침 여섯시에 봉천서의 손에 시흥군동면 봉천리에 강도가 낫다함은 별보와 갓거니와 작이 십팔 여전여섯시경에 봉천경찰서에 서는 소관경찰서의 농지를 막고 숙시현사가 관내에 버려서 그 범인을 경제하든 바 밀정은 그 관내 도단의 한명을 드리며

▶ 1922.8.18

始興虹山에 헌살曲豆
이것을 놓고 크게 놀라지 이
판이 혼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조
사하는 동시에 그 조사한 사실이
경기도 광활부에 보고하였다. 이
로 동부에서는 전지와 갖지 관
각 경찰서에 범인수색에 대항하여
지를 한 것이라 하여 기라 자세히
내놓은 아뢰비밀에 봇장으로 암
암을 치른 남자 한 명이 단도에 목
여덟 대 무참히 사망한 것임 그 곳
으로 나무 하려 것과 염려 농부가
즉 보도 할 수가 없더라

시흥 홍산에 피살체

경기도 경찰부에서 범인수색 명령

재작 16일 오후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그 관내 각 경찰서에 모종대 범인 수색에 대한 통지를 발하였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듯대 재작 16일 오전 두시경에 시흥군 북면 구로리 뒤에 잇는 흥산이라는 산속에서 30여세 가량 되어 보이는 신사의 모양을 차린 남자 1명이 단도에 목이 찔려 무참히 사망한 것을 그곳으로 나무하러 간든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고 크게 놀내여 이 사실을 소관경찰서에 보고하였는데 동서에서는 즉시 다수한 경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동시에 그 조사한 사실을 경기도 경찰부에 보고하였음으로 동부에서는 전기와 갓치 관내 각경찰서에 범인수색에 대한 통지를 한것이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에 봉침으로 아직 보도할 수가 없더라

► 1922 8 19

犯人은 五里霧中
정찰부의 재속할동
시흥옹산살인사건
시흥군북면 북로리옹산(始馳郡北面北老里驍山)에서는 지난간 십륙일 오전 두 시정에 엊려한 삼십세가량되는 양복입는 청년을 칼로죽이어 그 근처 혈도선로에 운반하야 흡사하고 차에 자살을 한 모양으로 살려놓고 도주한 뒤 인기 있다함은 임금과 도하악거 나와 이금보를 드롭정이도 정찰부(京畿道監察部)에서는 금아정부(金野寧部)가 수령의 순사를 다리고 현장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 중이던 비금아정부는 작일 오후에 도라왓는데 피살을 당한

법안은 오길무록

시흥 흉산 살인사건 경찰부의 계속활동

시흥군 북면 구로리 흥산에서는 지난간 16일 오전2시경에 엉더한 30세가량되는 왕복입은 청년을 칼로 죽이어 그 근처 철도선로에 운반하여 흡사히 기차에 자살을 한 모양으로 꾸며놓고 도주한 범인이 있다함은 일의 보도

하야거니와 이 급보를 들은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금야경부가 수명의 순사를 데리고 현장에 출장하여 범인을 수색 중이던 바 금야경부는 작일 오후에 도라왔는데 피살을 당한 청년은 별로히 금전을 가진 형적도 얹고 상고할 점이 없다고 발표하였다며 엇더한 증거를 어디 모방 면으로 활동을 하는 중이라더라.

▶ 1922.8.24

(이삼이 옆밤재정지 구빠령)
京畿水害
자일사지조사되
경기도 각 군수 해는 아즉 드를 머로
보도하면 아래의 갓더라
▲楊州郡 양주군에는 왕숙천
(王宿川) 이 여덟자나 총 수되어 면
고
▲醴川郡 려천군에는 동란천
(東灘川) 이 십팔척이 총 수되어
십오호가 침수되고
▲坡州郡 파주군에는 림진강 물
이 점々 늘어서 사백여호가 침
수되었고 문산포에서 장단과
개성 등으로 가는 길이 막히었다
하며
▲長湍郡 당단군에는 림진강의
물이 오십여척이나 늘어 세집
이 떠나려가고 사십오호가 침
수되었고
▲始興郡 이십삼일이 래한 강물
이 늘어서 시흥군 봉동면에는
사십여호가 침수되어 면고
▲廣州郡 광수군에는 한강지류
금량천(金良川)에 다리가 떠나
려가서 리천(利川) 방면에 교통
이 차단되었다

작일까지 주사된 경기 수해

경기도 각군 수해는 아직 드론대로 보도하면 아래와 것들이다.
시흥군 23일 이래 한강물이 높어서 시흥군 영등포에는 40여
호가 침수되었고

▶ 1922.9.6

우리문화의 시흥사건

기타의 범죄도 잡지 못함이 만타.
한자 시흥군 용산에서 어떠한 청년 1명을 살해한 사실이 있었다함은 이미 보도한바 있거니와 경기도 경찰부에서 지금까지 보안과의 경관이 충동원되어 반달동안이나 각 방면으로 범인을 수색하는 중이나 범인의 종적은 고사하고 현장에서 침실을 담한 피해자의 신분과 성명도 판명되지 못하여 사건의 수색은 점점 묘연한 디경으로 웃쳐감으로 사회에서는 경찰의 활동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경기도 경찰관내에서 금년 일월부터 률월까지 반년사이에 범죄를 한 건수가 6천7백4십건이요 검거한 건수가 5천7백5십3건에 달하여 범죄한 층계에 비하면 482건을 체포지 못하였고 그 중에는 작년에 발생한 범죄도 금년에 이르러 체포된 것도 있음으로 금년에 발생한 범죄의 1할 이상은 체포지 못한 세율이며 범죄의 종류로 보면 살인범이 31명이고 강도가 76이고 절도가 4천5백9십1명이고 횡령이 613명이거나 그다.

▶ 1922.10.14.

驚采津強盜는

노량진강도는 영터리업는 거짓말

순형수는 잡혀 죽자

재작 12일새벽 1시50분경에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로랑진리 손형수(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면 노랑진리 손형수)(23)가 강도를 만나서 약간의 돈을 빼앗기었다함은 임의 보도한바이어니 용산 경찰서에서 다시 자세히 조사하여 본 즉 강도를 마쳤다는 것은 엉터리업는 거짓말이요 손형수는 원래 로동자인데 그 전날 남대문명거장 짓는 공사장에서 심장에게 몇일 동안 삭전을 받은 후 술을 먹고 또 집으로 도라가다가 종로에서 또 술을 먹고 다른 노동자 패들과 싸워서 매를 훔친 맛고 돈을 모다 일하버리고 새벽녁에야 집으로 도라갓으나 돈 받아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활말이 입 스낫가 터무니임시 지금 오는 길에 한강철교에서 별안간 강도 3명이 나타나서 둥둥 이로 때리고 가진 돈을 빼앗아 갔다고 꾸며 되었더니 안에서 자던 형이 그 말을 듣고 곧 그 근처 파출소에 고발하였음으로 경찰서에서 형사가 값을 때에도 그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으로 손형수는 관청에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방금 용산 경찰서에서 최초 증이라더라.

열대해변 해양 표도판 바이어나
와 풍선 모형 철거에서 다시 자세히 조
사하야 본죽 장도를 마쳤다는 것에
은 정리 작업도 거짓말이요 손수 짜
수는 원래로 동자인며 그 전날 남
미 표정가 살지는 공사장에서 십
상이 제 몇 철통인 삭권을 받든 후
술을 마고 도진으로 도라가다가
중도에서 또 술을 먹고 다른 동
자 떼들과 차와서 떠를 흥신 맛고
돈을 모다 일하버리고 새벽녘에
야 집으로 도라갓스나 돈바다가
지고 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말 말이 업스낫가 더무니 입시지
금오군길에 한강렬교에서 별안
간 장도세명이나 나서 둥동이
로 놔리고 가진 돈을 뺏아서 갓다
고 끔여 죄이 엎더니 안에서 자들
형이 그 말을 듣고 끗고 근처파출
소에 고발하였다. 이로 모형 철거에서
형사가 갖출때에도 그대로 거짓
말을 한 것임으로 손수 짜는 판례
에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죄목이

▶ 1923.6.30(4)8

始興郡永登浦永輝俱樂部에서는
少年으로 하여금德智體育을獎勵
하여社會奉供의思想을普及케하
기爲하야今般少年軍을組織코자
同部任員諸氏가發起에努力中인
며來月一日에此에對한協議會를
永登浦基隆敎會堂에開催한다더
다(始興)

시흥에 소년군 발기

시흥군 영등포 영휘 구락부에서는 소년으로 하이급 덕지체육을 장려하며 사회봉공의 사상을 보급케 하기 위하여 금반소년군을 조직코자 동부일원제씨가 발기기에 노력중인다 래월 1일에 차에 대한 협의회를 영등포기독교회당에 개최한다더라. (人壽)

► 1924.6.29(3)5

서울 중립 보통학교

► 1924.10.17(3)

四百日既出에서 삼주元濟氏는 四
百日中에 積善社長 沈氏를 第三班 領
南院副使의 女子로 本州城에 와
서 앉는 소리가 고을마다 나뉘었고
유하여 모든 바위에 記留先祖此는 玄
부원에 와서 워울보다 가지는 일
月二十日에 京城으로 부려自己
집에 도리간국 率太乙은 二十二日
방에 어머니도 떠나 하여 버려고 諸父
사람 와 품은 말을 드면 間坐獨
長이 으로 傳來로 許所가 密切하니
沈氏는 이란 사람이 떠나 하여 봄에
되자 大乙은 소연히 沈氏를 의집에
다니 밤이잇느냐 그 악을잇지 아니
하고 입어두어 머나近日에 와서 聞
화하여 그의 誓言을 한다고 (前略)

日直區長不直

始興郡西面日直里에사는 李完善氏는 四年前에 妻喪한 後 黃海道 응진郡 東南面 魚化島의 女子로서 京城에 와서 잇는 李太乙을 만나서 살림을 하여오든바 전기 이완선씨는 춘히 경성에 와서 일을 보다가 지난 七月二十四日에 京城으로부터 己自己집에 도라간즉 李太乙은 二十二日밤에 어대로 逃走하여 벼랑

고 親한 사람의 傳하는 말을 드르면 同里區長이 오던 從來로 交誼가 密切하든 沈明澤이란 사람이 유인해야 둘렸다는 말이 잇느냐 그 말을 잊지 아니하고 덤히 두엇더니 近日에 와서 前記 李太乙은 公然히 沈明澤의 집에 와서는 同居하고 있슴으로 李完善氏의 慎愼은勿論이오 沈氏의 行爲에 對하야 一般이 睡夕한다고(始興)

今年稻作狀況 昨年豐收豫想

일월삼부칠리가증수된를
피해의디마는비교역행소
減收地는慶南파江原

十四年 豫想高 此此外而陝秦收穫大約十三 四萬石	一四、八八三、〇九五
	合票據
道名 今年收穫豫想去年度 京畿 一至六、五五石 〇長六 忠北 一至六、零七 一六〇	一至六、零七 一六〇
南全 一至六、零五 一四、七一 北全 二二天、一七 一五五	二二天、一七 一五五
慶北 一至六、零七 一五七 慶南 一至七、零五 一五七	一至六、零七 一五七
費南 一至七、零六 一五七 淮南 一至七、零六 一五七	一至七、零六 一五七
平南 一至七、零六 一五七 平北 一至七、零六 一五七	一至七、零六 一五七

▶ 1925.9.27

금년 도작 상황 작년보다 좋을 예상

일활삼부칠리가 증수될 듯
피해의디대는 비교적 협소
감수지는 경남과 강원

금년도작 상황에 대하여 충돌부 도사에 의하면 육월말까지는 비가 끊히 오고 일기가 조하서 근년에 드문 풍년일 것을 예상하였으나 칠월팔일로부터 십이일까지 남도에 큰홍수가 있어서 락동강 연안의 피해가 만하고 칠월십오일부터 십팔일 까지는 중부디방의 큰호우로 한강연안의 농작물에 피해가 불소하였으며 또 구월육일 칠일 양일간의 폭풍으로 남부조선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서 금년수확은 얼미간감수를 면치못할것가지 예상되나 조선전체로 보아 피해디대는 협소한 일부분에 지나지 못함으로 전조선의 수확에는 별로하 큰영향이 업스리라는데 금후기후에는 큰 변동만 업스면 추분당일에 예상한일천사백팔 십팔만삼천구십오석이 수확될듯하다는데 이것을 작년실수고 일천삼백팔만일백칠십구만 팔천팔십육석증 일할삼부칠리의 증수로써 근년에도 드문 풍년이던 재작년 실수고 일천오백삼만 팔천칠백 칠십삼석에 비하면 실모만 오천육백십팔석증 일부기량의 감수하는데 이것을 루년대조급각도의 수확예상고와 작년의 실수고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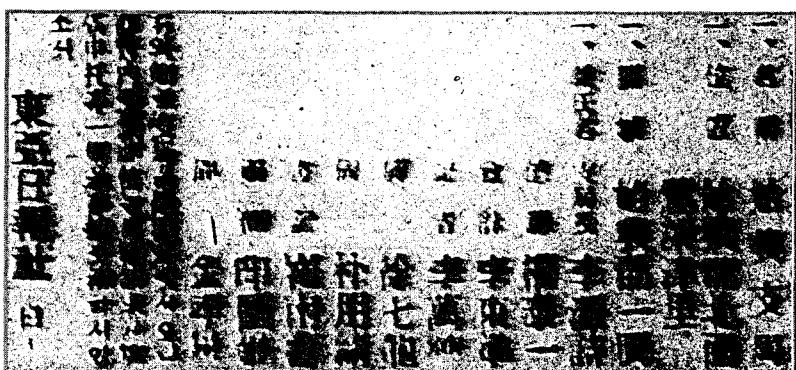
▶ 1925. 10. 25(2)

전도 불안한 만여 생령

경기도 관내 이재민 현황

금년 여름의 큰 수해로 인하여 가옥의 유실 도고 농작물의 전멸 등 그의 피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심한곳은 디형까지 변하여 밭이 패여 바다가 치 된 곳도 있고 논에 모래가 밀리여 산가치 된 곳도 있어서 그 따에서는 다시 부락을 일운다 할 지라도 살아갈 길이 업슴으로 노동자가 되어 생업을 따라 일터로 몰리고 혹은 물에 일하러린 살림사리를 다시 일이 킬 희기 업서 폐허의 고환을 향방 업시 떠나는 부랑민들도 만호며 또는 미래에 또 다시 덕쳐 올 듯한 수재를 염려하여 미리 위험한 터전을 버리고 안전한 디대를 택해야 새로 한 부락을 일우는 리재민들도 만하니 수재전과 수재후의 변화는 딴판으로 되여 경기도 관내에도 그와 같이 이미 변화된 것과 금후에 변화될 것을 종합하면 실로 2천4백4십8호에 1만3천8십3명이나 된다는데 그 중에는 직접간접으로 구제를 하지 안으면 덕처오는 추운 겨울을 살아갈 길이 있는 생영이 1만명 가량이나 된다하며 보안경찰상 악화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자가 1백8십5호에 9백5실 여명이나 된다하며 농작물의 피해로 명년도 종자 턱이 없는 농민이 4만호 가량이나 된다더라.

▶ 1925.12.8



동아일보사 사고

▶ 1926.1.2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始興郡君子面)에서 절도 범인을 동민들이 사형(死刑) 하여 죽였는지 경관이 고문을 하여 죽였는지 자못의문의 사건이 일어난 바에 대해 전국 군자면이란 곳은 경부선 안양역(安養驛)에서 나려서도 사실 여전히 그 통로(通路)는 산간 험로로 불편한 벽지(僻地)인데 차 히 불편한 벽지(僻地)인데 차 가 그곳을 갖을 때에는 이 미원교(元橋) 건사일행(建寺一侶) 주재 소에서 동행한 던중환(丁中煥) 의사의 손으로 피해자의 시체 해부를 막치고 방금 피해자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심문하는 중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경관의 고문으로 업무를 막았기 때문에 한사실이 감옥에 있다 한다. ◇ 고록과 원조사

시흥군 살인사건

경찰이 고문하여 죽인 것은 아니라고 전후 사실을 알 수 없는 시흥살인 사건 검사활동과 사건의 표면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에서 절도 범인을 동민들이 사형하여 죽였는지 경관이 고문을 하여 죽였는지 자못의문의 사건이 일어난 바에 대해 전기 군자면이란 곳은 경부선 안양역(安養驛)에서 나려서도 사실 여전히 그 통로(通路)는 산간 험로로 불편한 벽지(僻地)인데 차 히 불편한 벽지(僻地)인데 차 가 그곳을 갖을 때에는 이 미원교(元橋) 건사일행(建寺一侶) 주재 소에서 동행한 던중환(丁中煥) 의사의 손으로 피해자의 시체 해부를 막치고 방금 피해자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심문하는 중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경관의 고문으로 죽은 듯하다는 것은 업는 사실이라 하고 기실은 어대까지 운명의 손에 놓락되는 인간의 옛말과 가쁜 기괴한 사실이 감초여 있다한다.

檢事活動과 사건의 표면

경찰이 고문하여 죽인 것은 아니라고 전후 사실을 알 수 있는 시흥살인사건

始興郡殺人事件

▶ 1926.2.25(4)12

흥동교 소인극성황

始興郡新東面殺人事件私立興東橋
投水死는 군민들로써 소수의 군민들이
하야 舊橋正初發利用하여 수坝以
後興東面新東面殺人事件私立興東橋
投水死는 군민들로써 소수의 군민들이
하야 舊橋正初發利用하여 수坝以
後一般有志者民衆聚安柯去二
十日부터 二十一日兩日間續續計
야 開挖築內에 서 驕馭 았는 素人
이 엊겼다는 바當日은 開挖 五
名에 遷하야 大聲及聲에 終了 하였
다 하며 第二日 二十一日에도 開挖
과 가치 소년會로 부터數十餘명의
驕馭으로 一殺人氏에 거莫大한
怨恨을 주었다 하며 駕馭으로 부터多
數한 駕馭金이 獲取하였다 하며 開
會하였다는데 同情者은 四千餘
명에 遷하였다며 라(東都)

► 1926.8.20(4)

正里人와

本報始興支局에서

讀者慰安

크로스아드 혁신무작

본보시 흥지국에서

본보시홍지국에서는 본보독지를 위안하기 위하여 좌기규정과 갑자 현상크로스와드를 모집한다는데 일반독자들은 미리 읊모하기를 바란다더라.

「轉」

1. 입춘일방문우나 대문에 부치는 글
 2. 국가에서 공신에게 주는 돈
 3. 학교에 제일 가는 어른
 4. 이해를 공부하도록 하는 것
 5. 치밀하게 측량한다는 말
 6. 부산부근에 있는 역명
 7. 백에 16을 가한 것
 8. 남의 논만짓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일晦
 9. 학생의 성적이 천재 갓다는 말
 10. 구 영등포에 있는 사숙의 명
 11. 전기를 배운다는 말
 12. 신동면 잠실리에 있는 사숙명
 13. 13도중의 하나
 14. 음악을 연구 하는 사람
 15. 가르켜 준다는 말
 16. 빌전한다는 의미와 갓흔 회명
 17. 군포장에 있는 민간단체의 명
 18. 몹시 기두련다는 말
 19. 조선에서 유행하던 시

▶ 1926.8.22

크로스와드

懸賞募集

讀者慰安

本报始興文局에서

本報始興文局에서는 本報讀者有言
對安詩 기회 하여 左記規定과 가족
懸賞 크로스와드를 賽集하다
云々 一 論者는 本報讀者하기
를 바란다(大解題)

横 一. 大門房日春立門에 끝나는 글

二. 國家에서 功臣에게 주는 툰

三. 學校에 第一가 는 어른

四. 兒童工夫하도록 하는 것

五. 繼續하게 制服한다는 말

六. 笠山附近에 있는 驛名

七. 百에 열려 참을 加한 것

八. 女의 고마움은 사리를 둘이고

九. 亂世의 일 흥

十. 桃水營相이 있는 私熟의 名

十一. 진리를 明운다는 말

十二. 新東西里에 있는 私熟

十三. 譲名

十四. 考叢을研究하는 사람

十五. 가르쳐 준다는 말

十六. 發展한다는 意味와 같은

十七. 會名

十八. 俗場에 있는 民間團體

十九. 現代 應用에서 流行하는

括 1. 懸賞淨에 있는 私熟

- 2. 無慚한 사리는 말
- 3. 토호를 뜻하는 말
- 4. 두양주란 말
- 5. 出을 전다는 말
- 6. 驛梁和風露學校言語的
- 7. 現代文學科學其體臭臭는 것
- 8. 朝鮮遊戲品中의 하나
- 9. 依舊當에 가는 舊名
- 10. 仁株中第一 큰 驛名
- 11. 依舊當에 가는 舊名
- 12. 朝鮮遊戲品中의 하나
- 13. 依舊當에 가는 舊名
- 14. 依舊當에 가는 舊名
- 15. 日本首府
- 16. 學生會의 年度區分하는 말
- 17. 教家의 部子라 말
- 18. 朝鮮驛站에 있는 驛名
- 19. 朝鮮驛站에 있는 驛名
- 20. 本支局管轄地名
- 21. 俗地에 있는 솔벼슬호다니 말
- 22. 천할면이의 사단
- 23. 一人之下 壬人之上

獎品

一等一人十二圓

(本報一個月分懸賞卷)

二等一人六圓

(本報一個月分懸賞卷)

「解」

- 1. 군포에 있는 사립학교
- 2. 무참한 사리란 말
- 3. 돈을 벌여준다는 말
- 4. 두양주란 말
- 5. 산을 진다는 말
- 6. 노량진 사로학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기관
- 7. 현대문학 과학기타 모든 것을 산 출하는 기관
- 8. 조선 유화품 종의 하나
- 9. 경인선 중 제일 큰 역명
- 10. 후작답에 가는 직명
- 11. 10시름이 란말
- 12. 승차 되었다는 현대의 말
- 13. 매기하여 뱃을 먹는 여성
- 14. 병을 웃치는 법을 배운다는 말
- 15. 일본의 수부
- 16. 학생들의 연도 구분하는 말
- 17. 종교가의 제자란 말
- 18. 시흥군에 있는 명산
- 19. 도국에 자조 나누는 천재
- 20. 본 지역관찰지령
- 21. 객지에 있을때 슬프다는 말
- 22. 舊고 즐겁단 말
- 23. 친할면이의 사위
- 24. 일인지하고 만인지상

▶ 1926.10.3(4)1

경성에 역정된 시흘 문학수의에 자크히 평리

시홍 일기자

시흥은 왕고 고구려시대 임벌노라운하다가 신라시국과라 칭하고 시흥구암사라고 불러 오던바 이조 세조시에 과천군과 합병하여 시흥군이라 칭하였스며 그후에 또다시 과천과 분리하였섯다니 대정 3년3월 부군 폐합할제에 안산군 대부분과 과천군을 합병하여야 지금까지 지한바 동북은 한강을 격하여서 경성부급 고양군과 대치하여있고 동은 청계산으로써 광주군에 접하고 남은 수원군에 계하였스며 서는 부천군 남양해에 임하여 김포군과 접하였을 뿐 아니라 경부, 경인철도가 군의 중앙을 관통하여서 교통이 편리하고 따라서 조선의 수부인 경성이 인접한 관계로 신문화유입에 지극한 편리를 감하게 된다. 그러나 한강이 동북을 격한 관계로 매년 홍수기마다 연안 일대 주민들은 ■■와 ■■을 아니 할 수 업게된다. 주민은 6만5천 9백여호 호수는 일만 이천 칠백여호라는 적지안은 식구가 사는데 이를 구별하라면 조선인 삼천삼백삼십일호 육만사천백십육인 일본인 삼백구십육호 일천오백사십이인 중국인 사십삼호 이백이인 계임만 이천칠백 윤십여호 육만오천구백오인이다.

사업계

시흥은 대개가 농번인바 7월이상이 모다 소작농이며 경작면적은.....

▶ 1927.1.30(4)6

永登浦市區改正

◇不遠에實現될리

京畿道始興郡永登浦는京城과隣接된小都市로京仁、京釜線의交通이便利한關係上比較的速度로發展되는傾向이잇슴으로神尾郡守와有志金泰灝氏等의發起로榮榮會를組織하고市區改正、京電電車延長電話料引下運動等으로理想的都市郡第二京城을現出하기에努力中이던바其間同面에對모든計劃이그만空想에歸하였던바同面協議員金泰灝氏는同案을復舊하여서純朝鮮人本位의大都市를만들고자數日前에自宅에來訪한藤田面長과長時間協議한後 다시郡當局과交涉하여不遠에置

現하도록猛烈히運動할터이라는 바金泰灝氏는如左한말하더라

永登浦都市計劃事業으로市區改正을할터인데昨年에委員外지다選定되였는즉當實現에着手하겠지요今年度豫算에編上할것은共同洗濯場、共同便所、屠獸場設置等이외다此는

다朝鮮人을爲하는事業임으로斷然코今年度에實施하도록努力하겠습니다수般高級日本書記採用도前年度豫算에超過치 안케다는面長의聲明이잇습니外萬一超過한다하면高級日人書記는結局採用치못하게되겠지요(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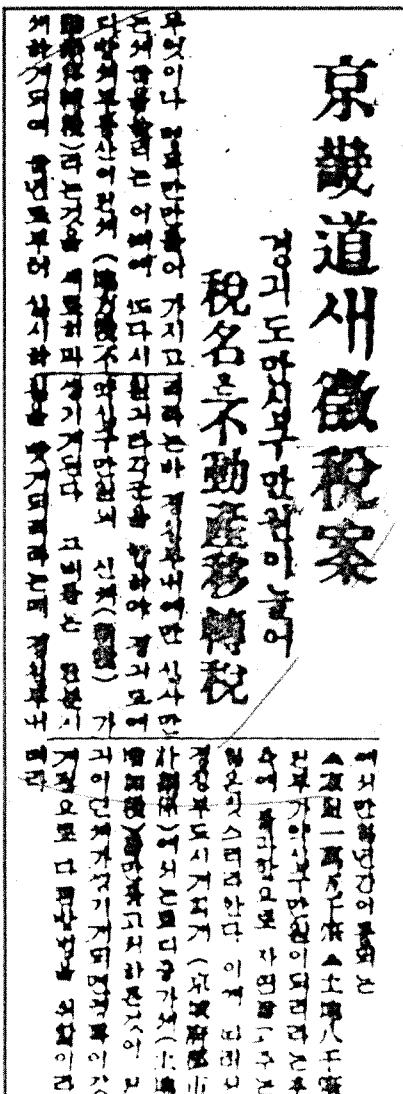
영등포시구개정

불원에 실현될터

(시흥)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는 경성과 연접된 소도 시로 경인 경부선의 교통이 편리한 관계상 비교적 속도로 발전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신미 군수와 유지 김태집씨등의 발기로 번영회를 조직하고 시구개정 경전 전차 연장 전화료 인하운동 등으로 리상적 도시군 제이경성을 현출하기에 노력 중이던 바 기간동연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모든 계획이 그만 공상에 귀하였다 바 동면협의원 김태집씨는 동인을 복구하여서 순조선인 본위의 대도시를 만들고자 수일

전에 자택에 래방한 등전면장과 장시간 협의한 후 다시 군 당국과 교섭하여 불원에 실현하도록 맹렬히 운동할 터이라는 바 김태집씨는 여좌한밀하더라 영등포 도시계획 첫 사업으로는 시구개정을 할 터인데 작년에 위원까지 다 선정되였는 즉 곧 실현에 착수 하겠지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은 공동세척장 공동변소 도수장설치등이외 다 차는 다조선인을 위하는 사업 임으로 단연코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고급 일본서기 채용도 전년도 예산에 초과하지 않겠다는 면장의 성명이 있으니까 만일 초과 한다하면 고급일인서기는 결국 채용처 못하게되겠지요.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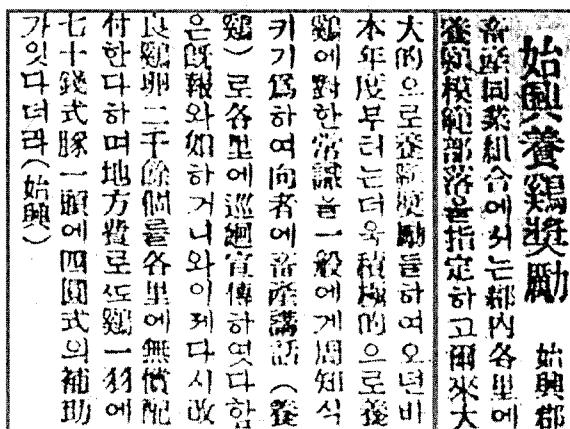
▶ 1927.2.15



경기도 새징세안

경기도만 19만원이 늘어 세명은 부동산 이전세 무엇이나 명목만 만들어 가지고는 세금을 늘리는 이때에 또다시 지방세 부동산이전세라는 것을 새로이 과세하게 되어 금년도부터 실시하리라는 바 경성부내에만 14만원 기타 각 군을 합하여 경기도에 약 19만원의 신세가 생기게 된다. 그 비율은 천분지월을 빗겨 되리라는데 경성부내에서만 일년간 이동되는 가세 1만5천원 토지 8천원 전부가 약 19만원이 되리라는 추측에 불과함으로 자연 늘고 주는 일은 잇스리라 한다. 이에 따라서 경성부 도시계획개에서는 토지증가세를 만들고자 하든 것이 전기이전세가 생기게 되면 명목이 갓게됨으로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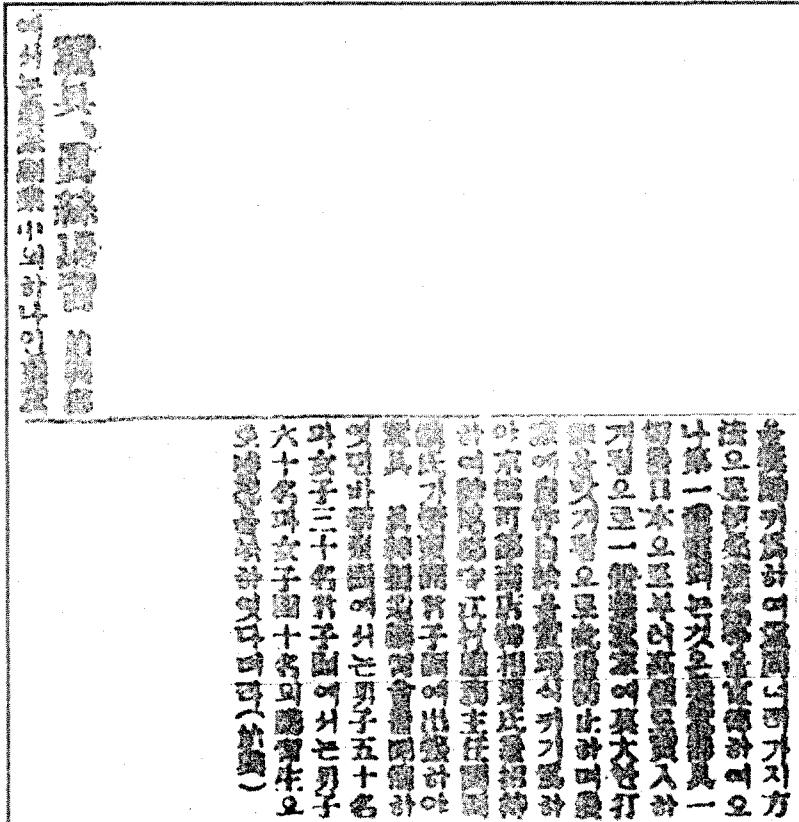
▶ 1927.3.3(4)



시흥양계장려

시흥군 축산동업 조합에서는 군내 각리에 양계 모범부락을 지정하고 대적으로 양계장려를 하여 오던 바 본 년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양계에 대한 상식을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황자에 축산강화로 각리에 순회선전하였다. 홍은 기보와 여하거니와 이제 다시 개량계란 2천여개를 각리에 무상 배부한다하며 지방비로 또 계일우에 70전식 돈일두에 4월식의 보조가 있다더라.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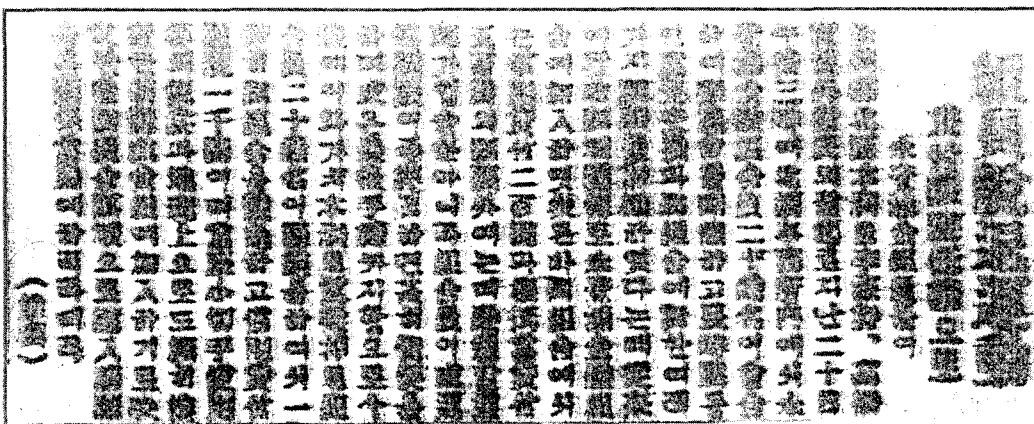
► 1927.3.5(4)5



장구 진사 강습

시흥군에서는 농가부업종의 하나인 양잠을 장려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 1927.3.24(4)1



조원 탈퇴운동

1927.3.28(2)9

시흥에 독감

(시홍) 시홍군 영등포 일대에는 수 일전부터 급성 독감이 유행하여 매허에 한두 사람식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대 사망자도 별서 여러 사람 이르더라.

▶ 1927.3.28

◆始興農業學校 始興郡新東面
里에 있는私立始興農業學校에
서는 지난 24일에 同校講堂에
서 第三回卒業式을 舉行하였다.
는데 수년卒業生數는十九명이며
其中에 大部分은 農業學校師範事
校 道農學校에 入學하게 되리라 데
라(始興)

◆濟州公農校 濟州公立

始興農業學校 시흥군 영등포(始興郡永登浦) 일대에는 수일 전부터 급성독감이 유행하여 매
호에 한두 사람식의 환자가 발생한
다는데 사망자도 벌써 여려사람
이라 라(시흥)

시흥에 독감

▶ 1927.3.31(4)9

◆始興農業學校 始興郡新東面
里에 있는私立始興農業學校에
서는 지난 24일에 同校講堂에
서 第三回卒業式을 舉行하였다.
는데 수년卒業生數는十九명이며
其中에 大部分은 農業學校師範事
校 道農學校에 入學하게 되리라 데
라(始興)

◆濟州公農校 濟州公立

始興農業學校 시흥군 영등포(始興郡永登浦) 일대에는 수일 전부터 급성독감이 유행하여 매
호에 한두 사람식의 환자가 발생한
다는데 사망자도 벌써 여려사람
이라 라(시흥)

시흥홍동교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에 있는 사립홍동학교에서는 지난 24일에 등교 강당에서 제3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금년 졸업생수는 19명이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농업학교 사범학교 철도학교에 입학하게 되리라 데라.

▶ 1927.4.4(4)

始興農業學校 始興郡永登浦
里에 있는 수일 전부터 급성독감이 유행하여 매
호에 한두 사람식의 환자가 발생한
다는데 사망자도 벌써 여려사람
이라 라(시흥)

始興農業學校 시흥군 영등포(始興郡永登浦) 일대에는 수일 전부터 급성독감이 유행하여 매
호에 한두 사람식의 환자가 발생한
다는데 사망자도 벌써 여려사람
이라 라(시흥)

영등포방수제

10월 0내에 완성

(시흥)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 일대는 한강 연안에 위치해 매년 홍수기마다 수천의 주민들은 일대공포와 불안을 감상하여 오던 중 미중유의 재직년 홍수에 침해는 발전에 초기에 재현 영등포에 일대 치명상을 반여하였으므로 총독부 당국에서도 차례 응급책으로 먼저 빙수제를 원축코자 복구비 6만 5천원과 한강치수 공비에서 15만 7천 5백원에 거금을 투하여서 재래에 있던 제방 연장 9백4십3간 오분을 1천1백1십3간오분(송월신서 당선리산까지)로 더 연장하여 가지고 적년부터 기공하여 이래 급급히 공사를 계속 중이므로 명년 3월말로 준공예정이 의외로 속하게 진전하여 감으로 늦어도 금년 10월경에는 완성되리라 하며 치를 준공하면 다시 계속사업으로 당선리산을 기점으로 현 맥주 공장부지 후신까지 연장 3천여간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리는데 폐금공사 중인 방수제는 재래보다 9척기량을 더 높게 쌓여 세사(해토)로 쌓은 후 다시 그 우에다 진토(산토)를 덥혀서 완전하게 될터임으로 재작년과 같은 홍수가 만일 또 있다 하여도 오히려 5척기량이 더 높게 남을 것임으로 금후로 수해의 염려는 없이 되리라고 모 당국자는 말하더라.

永登浦防水堤

十月以内에 완성?

와란 越下에 金鐵等物을 用

▶ 1927.4.19(4)5

始興昨年屠殺

廿二萬七千餘頭

始興郡管內七個所의 屠殺場에
屠殺하여 全郡사람이 昨年度一年
동안 먹은 고기(牛豚馬)값은 二
三萬七千九百四十八圓에 유통한다.

部位	斤量	價格
一、 牛	七七、四四六斤	四一、五七三圓
二、 牦牛	四五七、四三三斤	一八一、二三八圓
三、 馬	五五〇斤	一四〇圓
四、 牛豚	一一、七六〇斤	一四〇圓

는데 이것을 始興全人口 6萬5千
餘名에 비하면 老幼를 포함하
고 每名에 年率 千均 三圓五十錢
원이 라는 屠殺種別頭數及價
格은 如左하다(始興)

시흥작년 도살 2십2만7천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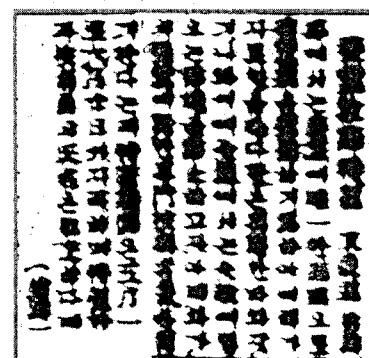
(시흥) 시흥군 관내 7개소의 도수장에서 도살하여 전 군사람이 작년도 일년 동안 먹은 고기(우돈마)값은 2십2만7천9백4십원에 달하는데 이것을 시흥전 인구 6만5천여명에 비하면 남자노유를 물론하고 매명에 연을 평균 3원5 십전 세음이리는데 도살된 종별두수급 가격은 여좌하다더라.

▶ 1927.6.1(4)7

敎授研究會 始興郡敎育

會主催呈去二十八日午前十一時
에 始興公立普通學校 내에서 郡內
各公私立普通學校 校長及敎員三
十餘名이 召合하여 敎授研究會를
開催하였다는데當日은 特히 京城
師範學校附属普通學校 訓導末永
民壽를 招聘하여 敎授方法을 批判指
考가 되었다더라(始興)

▶ 1927.5.2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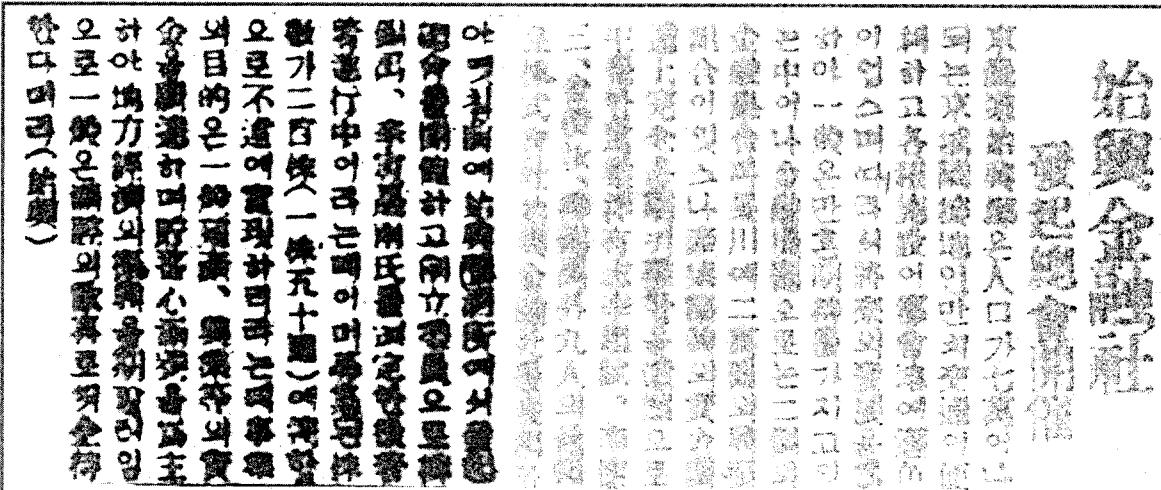
**始興産業講習**

京畿道 始興郡에서는 產業獎勵와 文化啓發을 目的으로 各面有志數千餘名을 召集하여 지난 二十四日부터 二十七日까지 四日間 武德館에서 產業講習會를 開催하고 神尾郡守以下 各郡係局과 道講師의 實際有利한 ■話等의 大盛況으로 지난 二十七日 午後二時에 完了하였다더라(始興)

교수연구회

(시흥) 시흥군 교육회 주최로 거28일 오전11시에 시흥 공립보통학교내에서 군내 각 공사립보통학교 교장급 교원 3십여명이 회합하여 교수연구회를 개최하였다는데 당일은 특히 경성사범학교부속 보통학교 훈도 말영씨를 초빙하여 교수방법을 비판지도 등의 연구로 교육지간에 만흔 참고가 되었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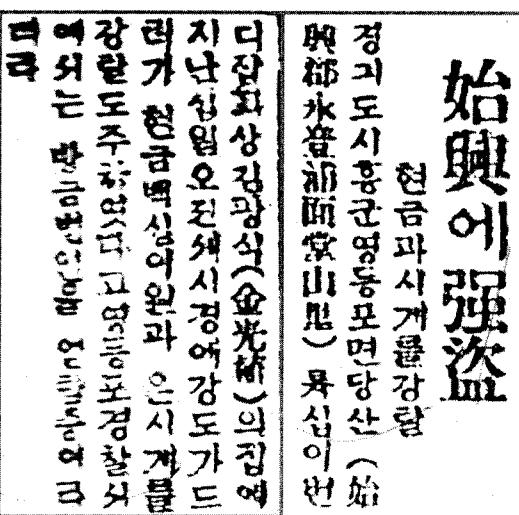
▶ 1927.6.4(4)6



시흥 금옹사 발기총회개최

경기도 시흥군은 인구가 7만이나 되는 경성인접지인 만치 교통이 편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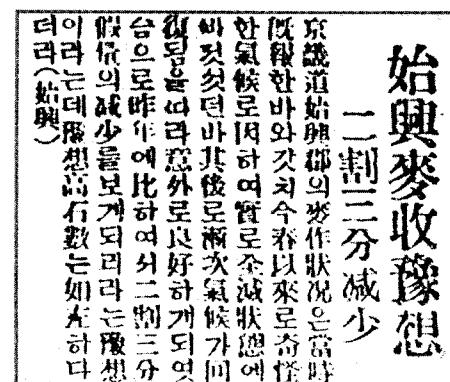
▶ 1927.6.15(2)9



시흥에 강도

현금과 시계를 강탈한 강도가 드러나면서 경기도 시흥군 영동포면 당산리 2번지 잡화상 김광식(金光植)의 집에 지난 실일오전 세시 경에 강도가 드러나 현금 백십원과 은시계를 강탈 도주하였다. 고영호 경찰서에서는 방금 범인을 염탐중이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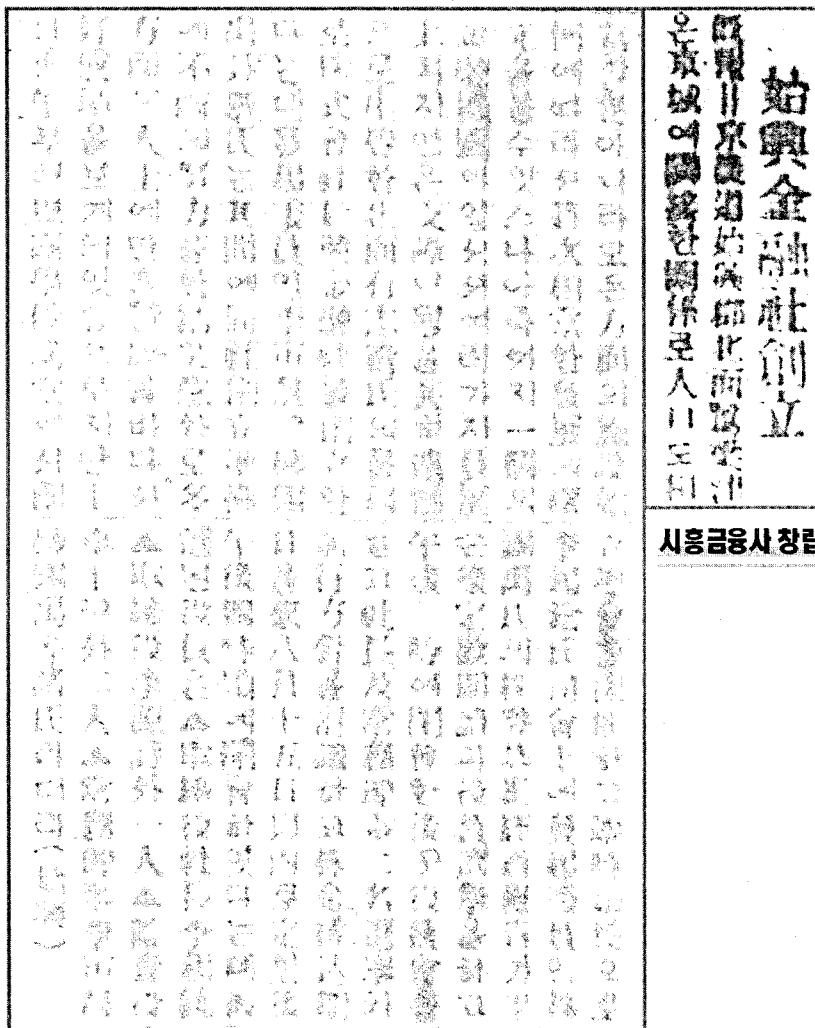
▶ 1927.6.2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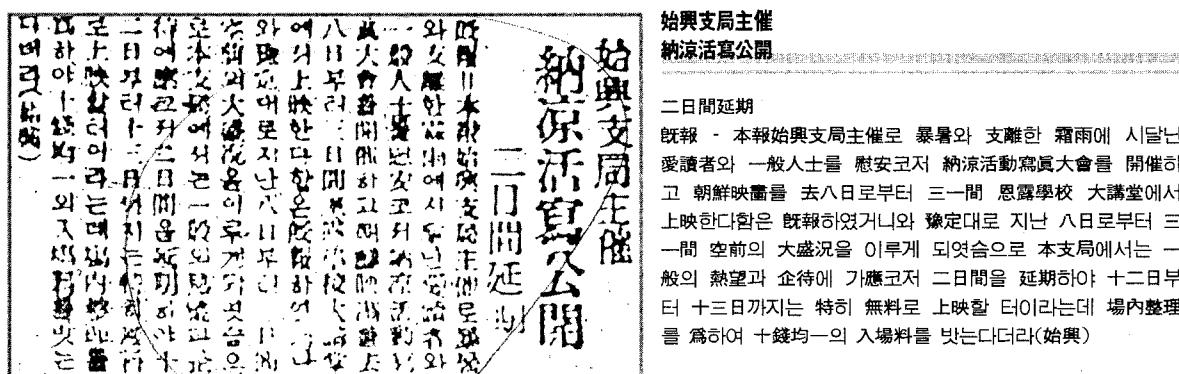
시흥 맥수예상 2할3분 감소

(시흥) 경기도 시흥군의 맥작상황은 당시 기보한바와 갓치 금춘 아래로 기괴한 기후로 인하여 실로 전감상태에 빠졌던바 그후로 점차 기후가 회복됨을 따라 의외로 양호하게 되었음으로 작년에 비하여서 2할3분가량의 감소를 보게되리라는 예상이라는데 상상고석수는 여전하다더라.
대액 19,603석 소액 2,255석

▶ 1927.7.12(4)2



▶ 1927.8.14(4)5



► 1927.9.24(4)4

橫斷路問題

鹿野吉京鐵道始興郡永登浦로부터同郡北面道林里에通行하는汽
車線路『踏切』를 얼마前부터鐵道
局에서廢止하고其代로前記場所
로부터約二百二十餘開步그로동
아니도易道路工事を함으로永
登浦及北面公職者가驟起하여
外數次協調한後始興郡能川縣務
主任과兩面長에게一任하여鐵道
當局에數三次陳情을 하였던 바鐵
道局으로부터서도업마前에技師
를現場에派遣하여實地를調查한
後多少問驗步量하여兩面에서主
張한 바와같이現通行場所로부
터解消하기로『踏切』位罝을
變更하기로 염슴으로問題은圓滿
히解决되였다더라(始興)

횡단로 문제, 평정 원만 해결

(시흥) 속보=경기도 시흥군 영동포로부터 동군 북면 도립리에 통행하는 기자선로(답절)를 얼마전부터 철도국에서 폐지하고 기대로 전기장소로부터 약 2백2십여 간 밧그로 돌아다니도록 도로공사를 함으로 영동포금북양면공직자가 월기하여서 수차 협의한 후 시흥군 능천 서무주임과 양면장에게 일임하여 철도당국에 수심자 진정을 하였던 바 철도국으로부터서도 얼마 전에 기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실지를 조사한 후 다소간의 양보를 하여 양면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현 통행장소로부터 약 백간 가량 밧그로(답절)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음으로 문제는 원만히 해결 되었다더라.

▶ 1927.9.24

시흥주로종합총회

전시홍주류 임명계 32명을 결속하여 조직된 시흥 주류조합에서는 지난 26일 오후1시부터 시흥군청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주기통일과 품질개량등을 토론한 후 회계결서기 유석우씨 사면한 대로 부조합장 백관영씨가 병무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사무소를 군청내에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군재무계 주세담당자가 모든사무를 대행하기로 결의한후 등 4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는데 출석 조합원수는 18명에 달하였다더라.

今此與內相合端總 全姑蘇區
領鹽造業者二十二名參照總計四
百餘名之報酒元組合而外是次
三十六日午後一時早起始開審理
內外分歸歸總會審閱審計科調領
統一叫品質改良委員對鹽社機會
計案舊記報請鴻氏辭免就代呈請
局台長白亮水氏力求願意引起上
限公事相合事務所鹽庫庫內事項
特列呈決定計在屆時可研財務保
濟稅務任者加予事務盡代行其
事務並定後同西時日以應事務
會計員等之出席相合員數上
十八名而滿計員(大司理)其總

▶ 1927.9.24

始興脚氣

시흥 각회 성황

▶ 1927.10.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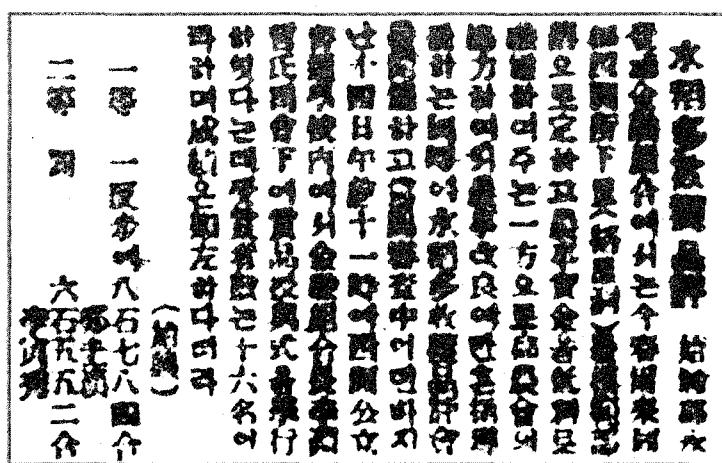


기호지방

당산청년회관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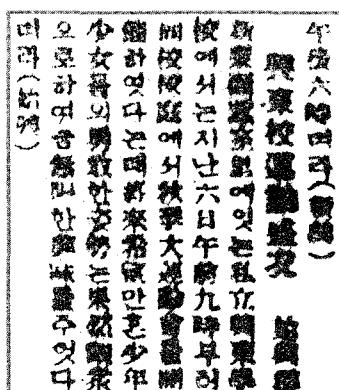
(시흥) 시흥군 영등포면 당산리 유지 김종혁, 홍경용, 최문업, 강귀남, 김형태 외 수씨에 발기로 얼마전 당산 청년대를 조직하고 동화무진전에 부단의 노력을 하여온 결과로 다액의 경비를 투하여서 동화관을 신축하고 따라서 전당산 구락부에서 경영하던 노동야학까지 인계하여 경영하는 중이라는데 대원은 80여명에 달한다더라.

▶ 1927.11.17(4)5



수도다수학품명

▶ 1927.10.10(4)6



시흥 흥동교 운동성황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에 잇는 사립 흥동교에서는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동교교정에서 주계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는데 장래 꿈만흔 소년소녀들의 용감한 자세는.....

▶ 1928.1.31(4)6

◆始興森林組合定總
林保護組合에서는 지난 26일
午前十一時頃에 鄰會議室에서 役
員會를 開催하고 昭和 3년度 種入
歲出 算을 原案대로 通過하였다
는데 岁入 岁出額은 八千八百圓式이
라 데라 (始興)

시흥 삼립 조합 정총

(시흥) 시흥군 삼립보호 조합에서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경에 군 회의실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였다는데 세입세출은 8천8원식 이라더라.

▶ 1928.2.17(3)5

◆竹栗少年會討論會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 소년회 (始興郡君子面竹栗里少年會)는 지난 십이월삼일에 그곳 유지 김규홍씨 (金奎輔)씨 외 제씨의 주선으로 조직된 후 아래 활동해야 오던 바 지난 음15일 하오7시부터 동회관안에서 남녀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더라 (시흥)

少年東亞日報

죽을 소년회 토론회

(시흥) 군자면 죽율리 소년회 (시흥군 군자면 죽율리 소년회)는 지난 12월3일에 그곳 유지 김규홍씨의 제씨의 주선으로 조직된 후 아래 활동해야 오던 바 지난 음15일 하오7시부터 동회관안에서 남녀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더라.

▶ 1928.3.2(4)16

시흥군 축산동 조합 정총

시흥군 축산동업조합에서는 거월 27일 오후 3시 40분부터 동군회의실에서 증전씨사회하에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소화 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결의한 후 동5시반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는데 동예산액은 세입세출 각 5천6백4십6원 씩이라더라.

▶ 1928.3.2(4)4

◆始興郡農會定總川始興郡農會에
부터 同郡會議室에서 定期總會를
會長曾田氏司會下에 開催하고昭
和 3年度歲入歲出徵算을 原案 대
로 次讀하고 午後三時半에 無事
히 闭會하였다는데 同總會額은歲
入歲出이 각 一萬四千六百五十八
圓式이라 데라 (始興)

시흥군 농회 정총

(시흥) 시흥군 농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동군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회장 증전씨 사회 하에 개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결의하고 오후 3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는데 동예산액은 세입세출이 각 1만 4천 6백 5십 8원식 이라더라.

▶ 1928.3.3(4)7

金組對組合員配當問題로 葛藤

始興郡永登浦金融組合에서는 금조대 조합組對組合員間에一大問題가勃發해去月二十七日에 同組合會議室에서 役員會臺開催하고長時間討論한結果左記와如하決議하엿다는데 그內容을 듯건대 同組合에
기往수外지貸附한金額中不當부로廻收할希望이 업는總額一萬
二千圓을 道의方針에 依하야 全부決損處分을 하고今年度中純益全
金七千餘圓으로充用하고今年中에는利益配當을 안겠다고 永井理事가主張한다 하야一般組合員를
은組合의過失로 不當貸附를 하여서決損된것을一般貧窮한組合員에
求를不應하는時에는役員의總額은勿論이고組合員의脫退次
리라(始興)

금조대조합원

배당문제로 갈등
시흥군 영등포 금융조
합에서는 금조대 조합
원간에 일대문제가 발
발해서 거월27일에 동
조합회의실에서 역원회
를 개최하고 장시간 토
의 한 결과 좌기와 여
히 결의하였다는데 그
내용을 듣건대 동조합
에서 지금까지 대부한
금액 중 부당대부로 회
수할 희망이 없는 충액
1만2천원을 도의 방침

에 의하여서 전부 결손처분을 하고 금년도중 순익금 칠천여원으로 충용하고 금년중에는 이익배당을 안겠다고 영정이사가 주장한다하야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에 과실로 부당대부를 하여서 결손된 것을 일반 빙곤한 조합원에 배당될 이익으로 충용한다 함은 용인할수 없다 하야 그외기타 여론이 비등하는데 만일 조합 원측의 요구를 불응하는 시에는 역원의 총사직은 물론이고 조합원의 탈퇴까지 있으리라더라(시흥)

▶ 1928.3.9(4)4

日本人書記採用은否決

始興面協議會서
李面長司會로開하고昭和三年六月
歲入歲出豫算을審議하든中識
季惠善氏로부터本面은指定而
나니며 또한日本人이 겨우百戶
滿임에도不拘하고前例에無한日未
本人書記를朝鮮人書記의近三倍
나되는給料로採用하게하고豫
을計上한것은面長이 넘으나無誠
意한즉本項을削除하고朝鮮人을
採用하면四百餘圓의餘裕가生하
즉그것은戶稅每戶當一圓五十
錢을一圓二十錢으로減하야서
般細民의負擔率을적게하는것이
妥當한事이라하야本案을撤回
다는動諭를하자日本人識員高澤
氏와李面長의採用하는것이可
다는要領不得의說明이잇엇스나
결局滿場一致로否決되어原案을
撤回한後李惠善高澤藤子剛氏를
委員으로定하야豫算案을다시
作成하기로決定하고午後三時에
시행된다더라(始興)

일본인서기 채용은 부결

시흥면 협의회서

(시흥) 시흥군 북면 협의원회를 지난 육일 오전10시부터 동면사무소에서 이면장 사회로 개하고 소화 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던 중 의원 이해선씨로부터 본면은 지정면도 아니며 또한 일본인이 겨우 백호미민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무한 일본인서기를 조선인서기의 근 삼배나 되는 급료로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계산한 것은 면장이 너무 무성의한즉 본향을 삭제하고 조선인을 채용하면 4백여원의 여유가 생한 즉 그것은 호세 매호당 1원5십 전을 1원2십전으로 김하여서 일반 세민의 부담율을 적게 하는 것 이 타당한 사이라 하여 본 안을 철회한다는 동의를 하자 일본의 원 고택씨와 이면장의 채용하는 것이 가하다는 요령부득의 설명이 있엇으나 결국면장 일치로 부결되어 원안을 철회한후 이해선 고택등자 양씨를 위원으로 정하여서 예산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오후 3시에 폐회하였다더라.

▶ 1928.3.29(4)3

始興青年會

去廿五日創立

始興郡永登浦에는于수外자青年會의創立이 업을大端遺憾으로 생각한金泰漢氏外數氏의發起로 지난 25일午前十一時頃에 同地普通學校內에 始興青年創立總會를開催하고 諸般事項을決議하고 左記와 如히任員을選舉하고 同午後二時頃에 無事히閉會하였다
다더라(始興)

會長金泰漢、副會長李昌雲、總務洪順基、會計盧光鎮、庶務部長劉秉錫、智育部長朴錦冰、勵農部長崔榮春、書記洪鍾華外一人外幹事四名

시흥청년회가 25일 창립

(시흥) 시흥군 영등포에는 우금까지 청년회의 창립이 업을 대단유감으로 생각한 김태집씨의 수씨의 발기로 지난 25일 오전11시경에 동지 보통학교 내에서 시흥청소년 청립총회를 개최하고 제반사항을 결의하고 좌기와 여히 임원을 선거하고 동 오후 2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더라. 회장 김태집 부회장 이정운 총무 홍순기 회계 노윤진 서무부장 유병선 지속부장 박호영 권능부장 최영춘 서기 홍종화 외 1인 간사4명 퇴장...

▶ 1928.4.1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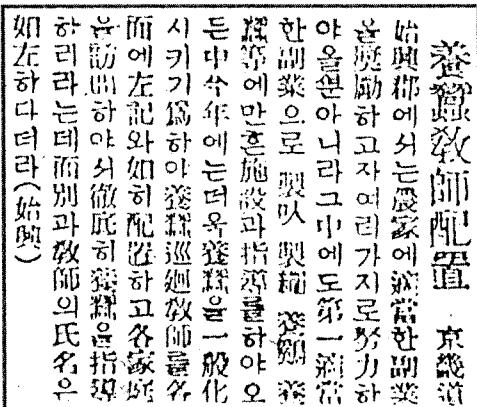
新吉里서組織 連西里聯業組合

始興郡新吉里에 사는尹復文微明丁士英、崔錦虎等氏는
本里鄉鄰을 가는 雜事을 改善하
는데는 먼저 資材 한 틈缺의必要가
있다 하여 計川前에 聚西里農業組合
을 設立하고 是事改善良期來勢等
에 만족努力를 하든 中이 라는 데 制
으로 25수日에 聚西里에 第一席
易하고 聚西里農業組合、舊里、舊里
聚西里農業組合는 繁忙期中에도
特히 聰明을 約하야 사방는 聰明
을 利用하여 繁忙期實行하고자 決
定計策하다 하며任員으로는 田舍農
戶稅課課長金泰漢、副會長丁士英
等(始興)

연시부업 조합

신길리서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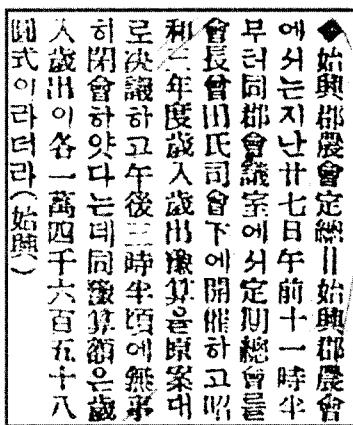
▶ 1928.4.20(4)6



양장교사배치

(시흥) 경기도 시흥군에서는 농가에 적당한 부업을 장려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올 뿐 아니라 그 중에도 제일 적당한 부업으로 제작 제건 양제 양잠 등에 민족 시설과 지도를 하아오던 중 금년에는 더욱 양잠을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양잠순회교사를 각 면에 좌기와 여히 배치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철저히 양잠을 지도하리라는 데 면별과 교사의 씨명은 여좌하다더라.

▶ 1928.4.25(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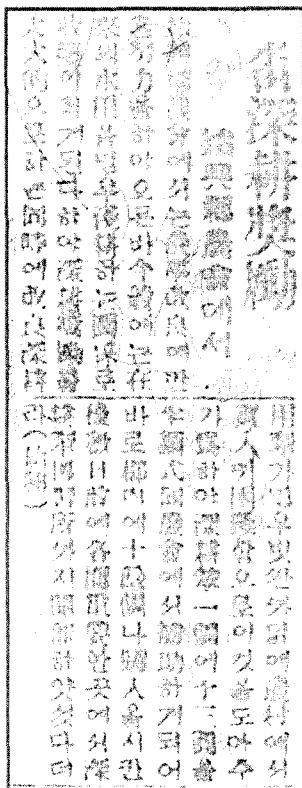
시흥군농회정총

독농가등표창

(시흥) 시흥군에서는 지난 이십일 오전 10시에 증 전군수로부터 군내 독농가급 모범정농자평등의 표창식을 거행하였다는데 상품은 경기도 농회로부터 수여된 것이라 하며 표창을 바든 사람은 여좌하다더라.

- 독농가 남면 당정리 양재찬
- 정농청년 동면 봉천리 이정한
- 우량면 서이면 일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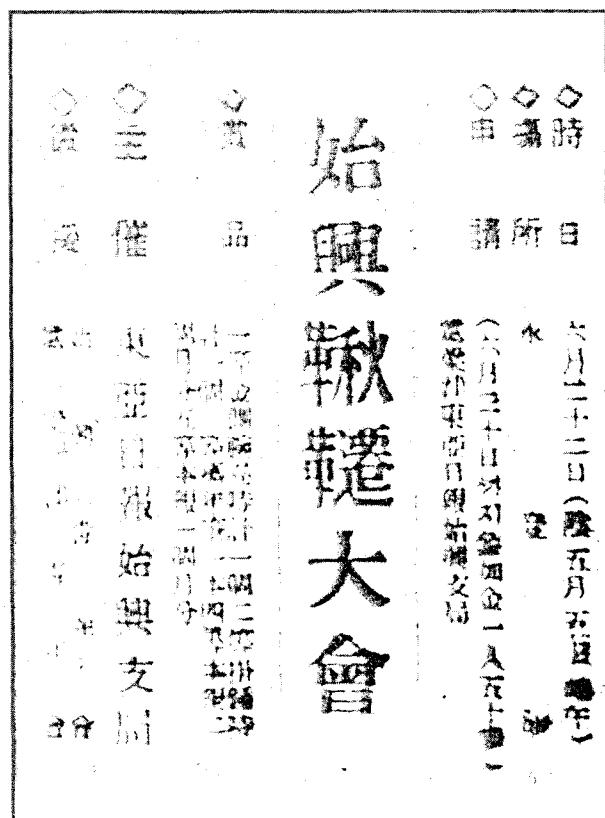
▶ 1928.5.13(4)5



시흥군농회에서 담심경장려

(시흥) 시흥군 농회에서는 농사개량에 만족 노력을 하여 오던바 금반에는 재래의 수전을 넘우 천경하는 관계로 수획이 적게된다 하여 심경장려를 대대적으로하는 동시에 개량심경용기가 넘우비 쓰기닭에 농촌에서 매입키 곤란함으로 이것을 도아 주기위하여 심경계 1개에 13원을 반액식농회에서 보조하게되어 바로 군내에 10여나 구입을 시킨후 수일전에는 각면중요한곳에서 심경계 ■습소까지 개최하였다더라.

▶ 1928.7.6(4)11



시흥주천대회

- ◇상품
- ◇주최
- ◇후원

▶ 1928.7.6(4)2

護岸區域에除外 洞民은 郡當局에陳情 家屋撤毀를 命令

始興郡永登浦가漢江沿岸에在한 야서 每年洪水期마다數千의住民들이一大不安파恐怖騷動기게될 分아니라乙丑年洪水에全滅狀態에빠지기되었음에달하서總督府當局으로서도그대로放置할수가 업서서巨額의工費로再昨年부터 防水堤工事에着手하여一期工事 를마치고二期工事로堂山里後山에서安養川外지의工事를昨冬부 터始作하게되었다합은當時報道 하였거나와이弊與을방지못하고 提防방지로쫓겨나고서도所有土 地와家屋까지撤毀를하지아니하면 아니될運命에빠진永登浦面堂里一部二十餘戶와金浦郡陽東而楊花里五十餘戶住民은將次갈 바를알지못하고疑惑中에있다는 데얼마前에洞民大會를開催하고 金貢培氏董代表로選定後金浦郡當局에歎願狀을提出하고下同만 苦待하는中이라는데그內容을통해 同里舍七千餘戶는乙丑年洪

水에전부流失를당한後來復舊에全力을倾注한結果이우原形에 돌아오게되수日에數間를離임에 도不拘하고防水堤로부터除外함으로조그마한洪水에라도全滅을 당할것은無疑할뿐아니라雪上에 加霜으로同工事基地에編入된家屋전부를今年霖雨期以內로전부撤毀하고嚴命하는同時에所謂 移轉費라고家屋의好不好를不問하고每間에金十五圓式을주겠다 함으로護岸工事로因하야이利益을 移轉費라고支하기는姑捨하고ollen이어 如此한恐怖와騷動을當하게됨은正히遺憾인同時에所謂移轉費를증 라면최어도每間四十圓以上最下三十圓이내을支給하도록해야달라는것이라더라(始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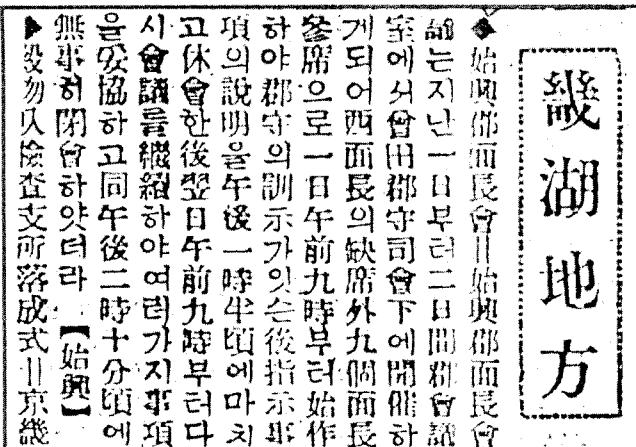
호안구역에 제외 가옥 철거를 명령

동민은 군당국에 진정

(시흥) 시흥군 영등포가 한강연안에 재하여서 매년 홍수기마다 수천의 주민들이 일대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읊축년 홍수에 전멸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 달해서 총독부 당국으로서도 그래도 방지할 수가 업서서 거액의 공비로 재작년부터 방수제공사에 착수하여 1기공사를 마치고 2기공사로 당산리 후산에서 안양천까지의 공사를 작동부터 시작하게 되었다함은 당시 보도 하였거나와 이 은전을 받지 못하고 제방밖으로 쫓겨나고서도 소유토지와 가옥까지 철거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운명에 빠진 영등포면 당산리 일부 20여호와 김포군 양동면 양화리 오십여 주민은 장차 길바를 알지 못하고 우려중에 있다는데 얼마 전에 동민대회를 개최하고 김인배씨를 대표로 선정 후 김포군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하회만 고대하는 중이라는데 그 내용을 들건대 동리합 7천여호는 읍축년 홍수에 전부유실을 당한 후 이래 복구에 전력을 경주한 결과 겨우 원형에 돌아오게 된 금일에 수간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방수제로부터 제외함으로 조그마한 홍

수더라도 전멸을 당할 것은 무의할 뿐 아니라 설상에 가상으로 동 공사기지에 편입 된 가옥전부를 금년 임우기 이내로 전부 철회하고 엄명하는 동시에 소위 이전비라고 가옥의 호불호를 불문하고 매간에 금 15원식을 주겠다함으로 호안공사로 인하여서 이익을 할수하기 고사하고 돌이어 여차한 공포와 희생을 당하게 됨은 심히 유감인 동시에 소위 이전비를 줄라면 적어도 매간 40원 이상 최하 30원이내를 지급하도록 하여달라는 것 이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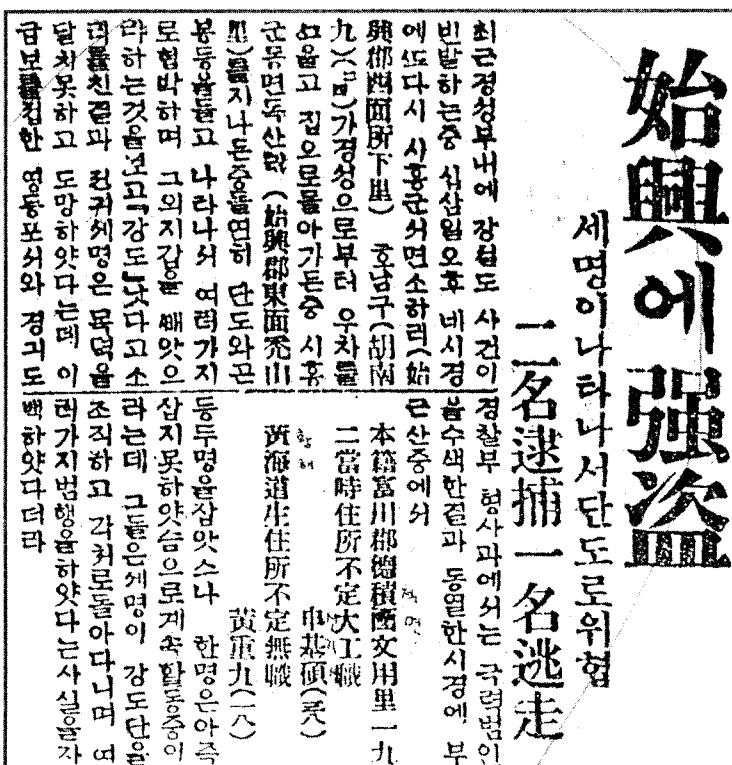
▶ 1928.8.9(4)10



시흥군 면장회

(시흥) 시흥군 면장회의는 지난 1일부터 2일간 군회의실에서 종전군수 사회하에 개최하게되어 서면장의 결석 외 9개 면장참석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군수의 춘시가 있은 후 지시사항의 설명을 오후 1시 반경에 마치고 휴회한 후 익일 오전 9시부터 다시 회의를 시작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타협하고 동오후 2시10분경에 무사히 폐회하였다.

▶ 1928.8.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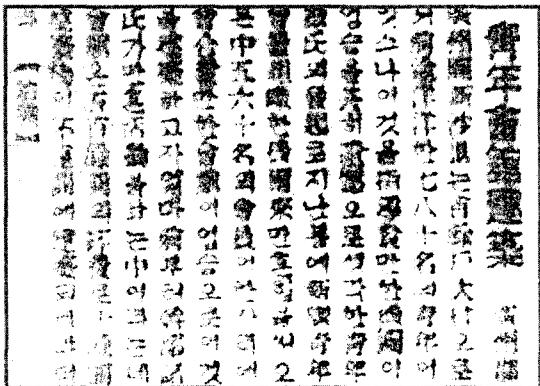


시흥에 강도

3명이 나타나서 단도로 위협, 2명 체포 1명 도주
최근 경성부내에 강절도 사건이 빈발하는 중 13일 오후 4시경에 또다시 시흥군 서면 소하리 호남구가 경성으로부터 우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중 시흥군 동면 독산리를 지나온 중 둘연히 단도와 곤봉을 들고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협박하면서 그의 지갑을 빼앗으려하는 것을 보고 '강도' 낫다고 소리를 친 결과 전기 3명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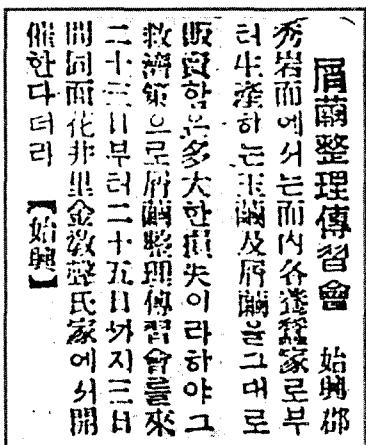
을 달치못하고 도망하였다는데 이 급보를 접한 영등포서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는 극력 범인을 수색한 결과 11시경에 부근 산중에서 본적 부천군 덕적면 문용리 192 당시 주소부정대공직 신기석 (38) 황해도 생 주소부정 무직 황중구 (19) 등 2명을 잡았으나 1명은 아직 잡지 못하였음으로 계속 활동중이라는 그들은 3명이 강도단을 조직하고 각처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

▶ 1928.8.15(4)6



청년회관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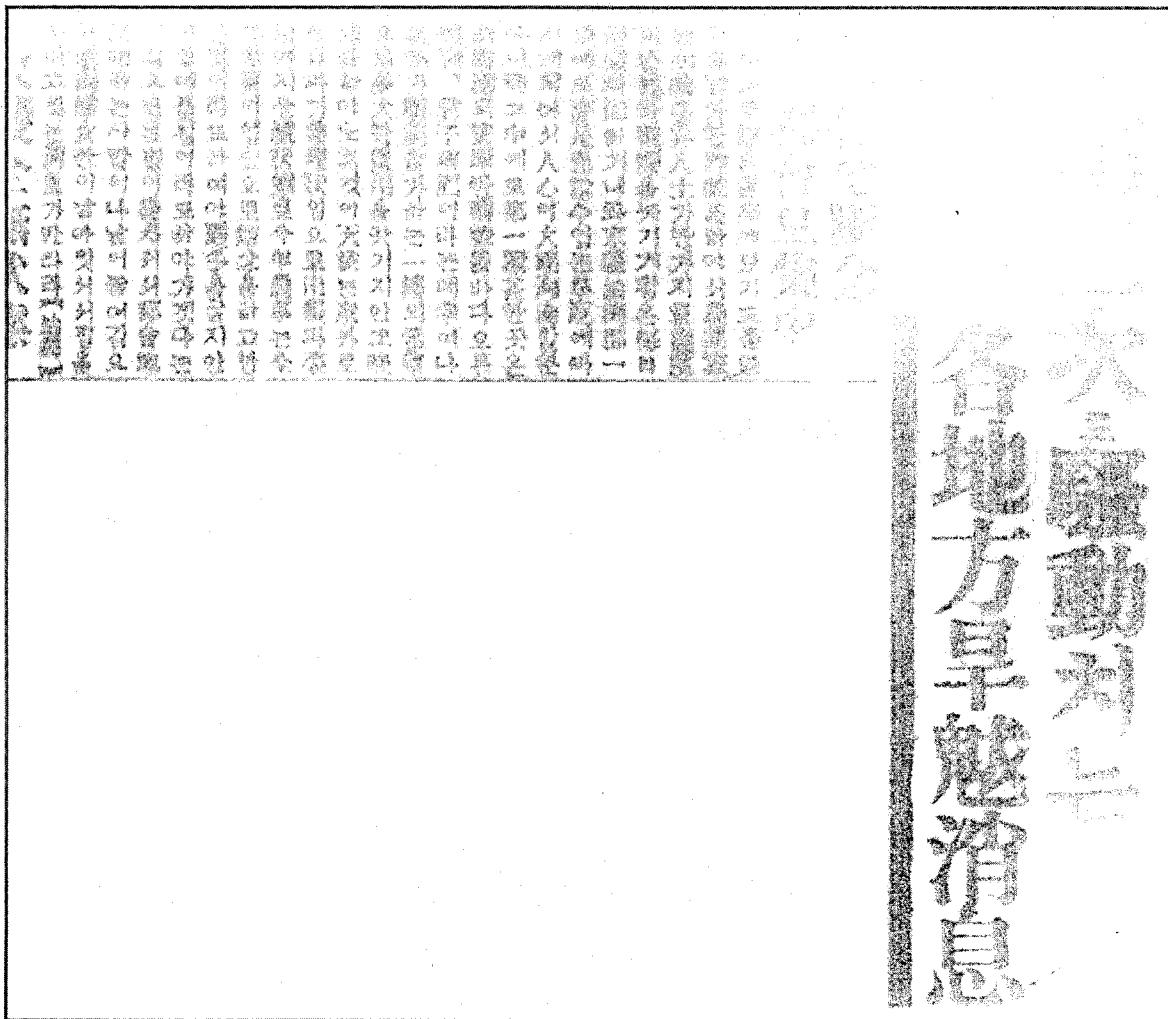
▶ 1928.8.16(4)4



설견정리전습회

(시흥) 시흥군 수암면에서는 면내 각 양장 가로부터 생산하는 옥건급설견을 그대로 판매함은 다대한 손실 이리하야 그 구제책으로 설견정리전습회를 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동면화정리 김교성씨가에서 개최 한다더라.

▶ 1928.8.26(4)1



제 2차로 유통되는 각지방한발소식

농작엔 단엽 도회로 집중

▶ 1928.9.25(4)6

시흥은 2할이 한해 감수액

始興은 一割餘 旱害減收額

京畿道始興郡의今年農形에잇서
서는 그間屢次報道한바와如히旱
災로因하야서만흔減收를보게되
었는데同郡農會에서調査한바에
依하면今年作付反計七〇二〇〇
反에수秋收穫豫想이五〇九九五
石으로前平年作에比하면略二割
五分假量의減收를보게되리라
더

경기도 시흥군의 금년 농형에 있어서는
그간 수차보도한바와 여히 한재로 인하
어서 만흔 감수를 보게되었는데 동군
농회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금년
작부반계 철만이백반에 금주 수확예상
이 50,995석으로 전 평년작에 비하면
약2할5푼 가량의 감수를 보게되리라더
라.

▶ 1929.1.31(7)6

**始興富川郡橫行團
強盜二名逮捕**

여죄도 만히 잇슬듯하다고
◇仁川署에拘禁取調中

지난 이십일밤에 부천군 소래면 면월곶리(始興郡君子面月小里) 포디(富川郡蘇萊面福里) 잠화상(安世鉉)의 집에 강도(強盜) 2명이 나타나서 그 주인을 살해하고 그의 상품을 가져갔다. 그 범인은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452번지 김창희와 동리 206번지 라사진의 2명이라 하며 인천경찰서에서 그간 업종 취도 한 결과 그 범인은 강도범행을 한 것이 금번뿐이 아니라 작년 7월경부터 2명이 공모하고 시흥과 부천간에서 13번이나 강도범행을 한 사실이 판명되었다는데 또 여죄유무에 대하여 계속 취조 중 이라더라.

액취도 중이 라데라【인천】
그 범인은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452번지 김창희와 동리 206번지 라사진의 2명이라 하여 계약을 맺은 바에 따라 그 범인은 강도범행을 한 것임으로 간주된다. 그 범인은 강도범행을 한 것임으로 간주된다.

시흥 부천간횡행단 강도 2명 체포

여죄도 만히 잇슬듯하다고

- 인천서에 구금 취조 중

(인천) 지난 21일밤에 부천군 소래면 포리 잡화상 안세옹(安世鉉)의 집에 강도 2명이 나타나서 그 주인을 결박한 후 현금 73원과 기타 상품 가격 40여원어치를 강탈 도주 하였음으로 이 금보를 들은 인천 경찰서에서는 그 동안 그 범인 수사에 전력하든 바 지난 27일에 부천군 소래면 고잔리에 잠복한 것을 태포하였다는데 그 범인은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 452번지 김창희와 동리 206번지 라사진의 2명이라 하며 인천경찰서에서 그간 업종 취도 한 결과 그 범인은 강도범행을 한 것이 금번뿐이 아니라 작년 7월경부터 2명이 공모하고 시흥과 부천간에서 13번이나 강도범행을 한 사실이 판명되었다는데 또 여죄유무에 대하여 계속 취조 중 이라더라.

▶ 1929.2.26(4)6

**始興兩面에서
貧民救濟事業**

이 나窮乏하든農民들의生活이 암호로 어려케나 되어갈는지一般은
이 나窮乏하든農民들의生活이 암호로 어려케나 되어갈는지一般은
始興郡君子、秀岩兩面은元來士
地가肥沃하고農產物의生產이 만
홀으로始興郡의資庫라는稱呼를
바다오든바未嘗有의昨春大旱
炎로서하야全收穫皆空으로 갖득
各各兩面에서組織하고一般有志
斡旋으로旱害罹災貧民救濟會를
의同情을求할뿐아니라道當局으
로부터近百石의正租補助까지
바닷다더라【始興】

빈민구제 사업

시흥양면에서

(시흥) 시흥군 군자, 수암양면은 원래 토지가 비옥하고 농산물의 생산이 만족으로 시흥군의 보고라는 칭호를 바다오든바 미증유의 작축 대학재로 인하여 전멸상태임으로

갓득이나 궁핍하든 농민들의 생활이 암호로 어려케나 되어 갈른지 일반은 대단히 우려하든바 전기양면장의 앞선으로 한해리재빈민구제회를 각각양면에서 조직하고 일반 유지의 동정을 구할뿐아니라 도당국으로부터 근백석씩의 정조보조까지 바닷다더라

▶ 1929.3.20(4)2

始興種稻配給 始興郡

農會에서는近來에보기드는연간昨年
旱災에莫大한損失을蓄하고今年
農計의可惡이업는貧農家를救濟
할方案을講究하든中우선急先務
인種子租를分配해야주어貧農들
의마음을安定하게한후다.시適當한
救濟策은研究하리라는데近日中
에種子租를地方費補助及農會補
助로無償配付할것이約二百石
(價額二千圓)에達한다는데面別
과戶數는如左하다더라.【始興】
一、秀岩面三三三戶六十八石六
斗
一、君子面一一二戶百三十石
一、果川面一八五戶十一石四斗
餘

시흥 종도 배급

(시흥) 시흥군 농회에서는 근래에 보기 드문 작년 한재에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금년 농계의 가망이 있는 빈농가를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던 중 우선 급선 무인 종자조를 분배하여 주어 빈농들의 마음을 안정케 한 후 다시 적당한 구제책을 강구하리라는데, 근일중에 종자조를 지방비 보조금 농회 보조로 무상배부 한 것이 약 2백석(가액 2천원)에 달하는데 면별과 호수는 여전 한다더라.

수암면 322호 68석 6두

군자면 112호 120석

과천면 185호 11석 4두여

▶ 1929.5.5.(2)9

九歲兒慘殺 郡市局

면번대곡리(始興郡北面番大谷里) 진상봉(金上鳳)(金)이라는 소년은 지난 이십팔일로 량진(梁津洞)으로 놀러 간다고 돌아오자 아니함으로 그 아이의 집에서는 사방으로 수색한 결과 일오후 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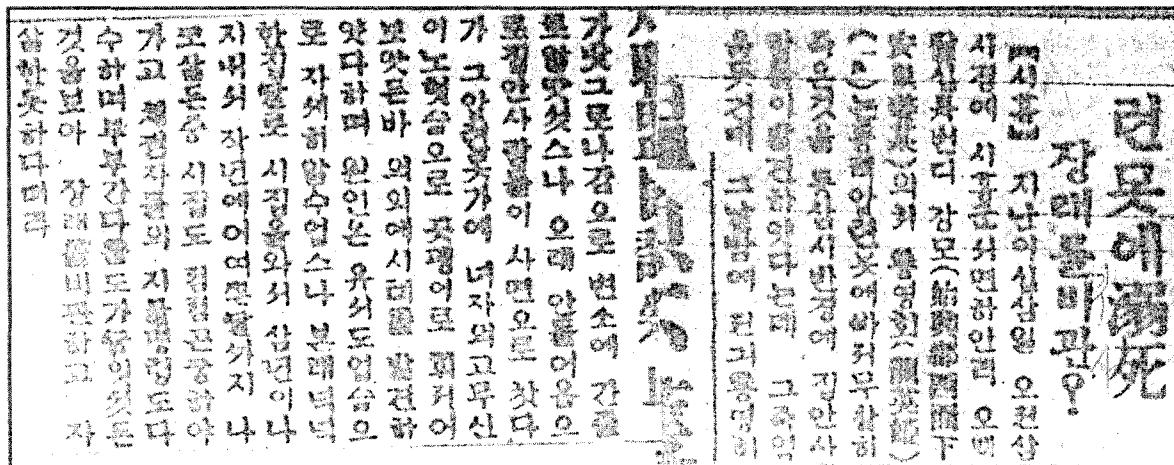
置備意專溫門科皮膚科外院理鎔口入洞洲瀛山電話番五四九

경에로 양진염산속에서 태살된
데를발견하였다.는바 경찰에 처엄
밀히검사한결과 태살된 것이라 확
히 판명되어 범인을 염탐중인데 범인은 동리 사람으로 벌서 어대로
인지 도주하였다더라.

9세아 참살

(시흥) 시흥군 북면 번대곡리 김상봉이라는 소년은 지난 28일 노량진으로 놀러간다하고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그 아이의 집에서는 사방으로 수색한 결과 2일 오후 2시경에 노량진 염산속에서 태살된 시체를 발견하였다.는바 경찰에서 엄밀히 검사한 결과 태살된 것이 확실히 판명되어 범인을 염탐중인데 범인은 동리 사람으로 벌서 어대로 인지 도주하였다더라.

▶ 1929.5.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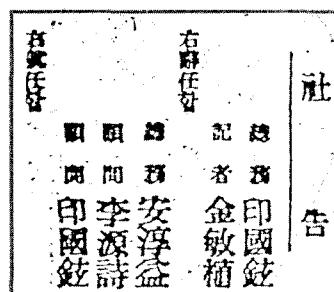
련못에 의사

장래를 비관?

(시흥) 지난 23일 오전 3시경에 시흥군 서면 하안리 586번지 강 모의 처 용영희는 동리암 련못에 빠져 무참히 죽은 것을 동 삼시 반경에 집안사람들이 발견하였다는데 그죽음을 듯건데 그날밤에 전기 용영희가 밤그로 나감으로 변소에 간줄로 알았으스나 오래

안들어 옴으로 집안사람들이 사면으로 찾다가 그 압연못가에 네자의 고무신이 노엇슴으로 곳괭이로 휘저어 보았던 바 의외에 시체를 발견하였다며 원인은 유서도 업슴으로 자세히 알수없었으나 본래 턱으로 차운 중 시체도 침침한 냉장장에 차운 채로 살피니 시체를 와서 살면이 지워서 차운에 이여졌을까지 수하며 부부간다를 도가 둘이었을 것을 보아 장래를 비관하고자 한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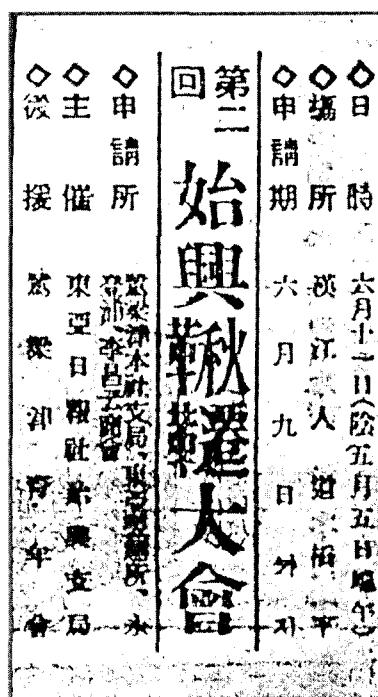
▶ 1929.5.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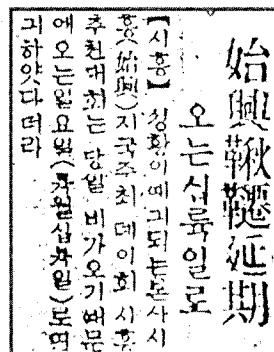
제2회 시흥 추천대회

일시- 6월 11일 (음 5월 5일 정오)
장소- 한강인도교
신청기- 6월 9일까지
신청소- 노랑진 본사지국 동아 ㅁㅁㅁㅁ소
영등포- 이창운 상회
후원- 노랑진 청년회

▶ 1929.6.9(3)11



▶ 1929.6.12(4)9



시흥주전연기 오는 16일로

(시흥) 성황이 예기되는 본사 시흥지국주최
제2회 시흥주전대회는 당일 비가오기 때문
에 오는 일요일(6월16일)로 연기하였다더라.

▶ 1929.6.19(3)6

시흥 본 지국 주최 추전 대회 성황

16일 한강인도교 앞에서 일등은 노랑진 조수명

(시흥) 본보시흥지국주최와 노랑진 청년회 후원일에 지난 11일에 개최하라든 데 2회 시흥주전대회는 당일 비가와서 부득이 귀보와 같이 16일로 연기하였던 바 이날은 일요일이고 더구나 일기가 쾌청하였으므로 루움이 무르녹은 한강인도교우일에는 원근각디로부터 모여든 수만명의 관람자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고

오후 한시에 본보지국장 조희철(曹熙哲)씨의 개회사로 막이 열리자 각디로부터 열광적으로 참가한 40여 명의 선수들은 각각 묵기를 필사적으로 발휘하여 관중들의 마음을 더욱 도취케 할 뿐으로 점점 경기는 진행되어 예선전을 마친 후에 한시간 동안의 휴계를 이용하여 래宾중으로부터 5명을 추첨으로 선정하여서 래宾경기를 하게되어 더욱 일반의 흥미를 도든 후 동4시20분부터 다시 계속하여 결승전을 마치니 때는 오후 6시 엎스며, 당선된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1등 노랑진 조수명
- 2등 봉산유선구락부 우복만

3등 경성부마포 정계순

4등 한강한 전평산

5등 경성부 청업정 정윤봉

1등 (래빈) 경성 김익수

*기증된 금품

18금 시계일개 - 노랑진 용금관

대회 위원급 청탁금 전부의 점심 이봉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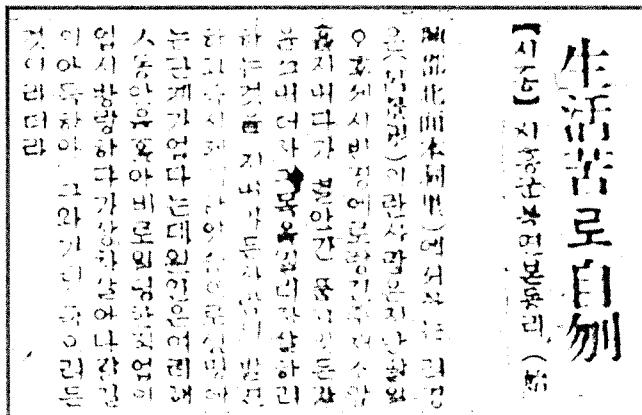
금13원씩 장총여 봉산 유선 구락부

금5원씩 김정술, 고병군, 김소봉, 유진국

금1원 이조연장

사진은 우승기수여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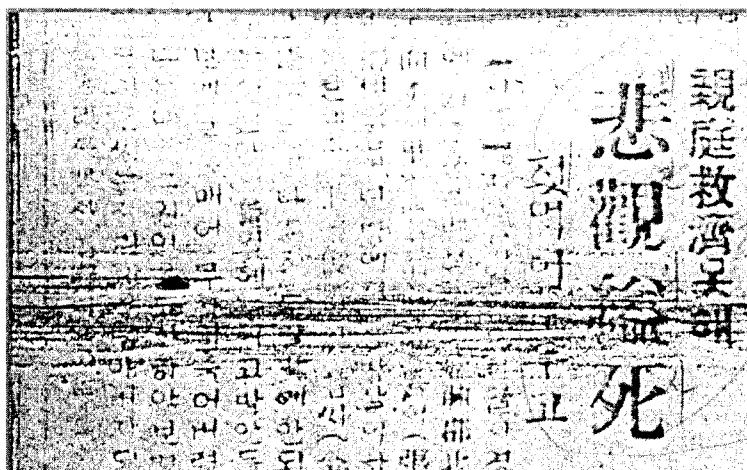
▶ 1929.9.10(4)6



생활고로 자문

(시흥) 시흥군 북면 본동리에 사는 려경은이란 사람은 지난 편일 오후 세시반경에 노량진 주재소암을 지나다가 별안간 품고 있던 칼을 꺼내어 자기목을 절려 자살하려 하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였음으로 생명에는 관계가 없다는데 원인은 여려 해 동안 훌이비로 일당한 직업이 업시 방랑하다가 장차 살아나갈 길이 이득해야 그와 같이 죽으려든 것이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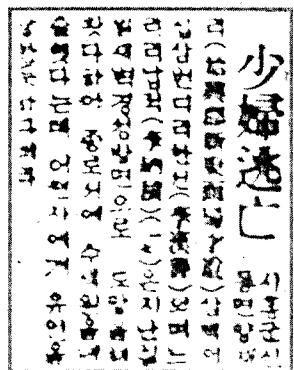
▶ 1929.9.15(4)9



친정구제못해 비관의사

첫먹이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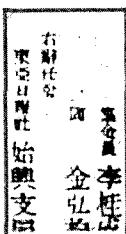
▶ 1929.10.11(2)7



소부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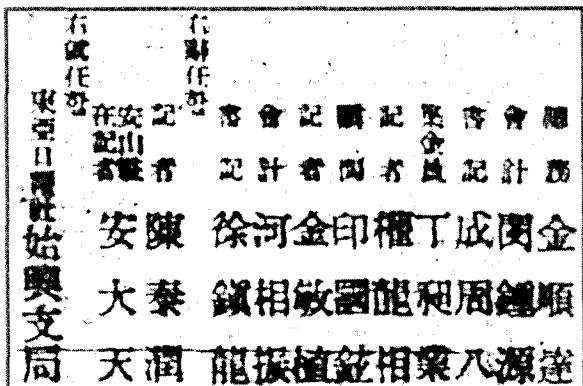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323번지 리한선의 며느리 리남적(16)은 지난 7일 새벽 경성방면으로 도망을 해왔다 하여 종로서에 수색원을 데출했다는데 어떤자에게 유인을 궁한 듯 하다더라.

▶ 1930.4.5(3)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 30.9.22



동아일보사

▶ 1930.11.1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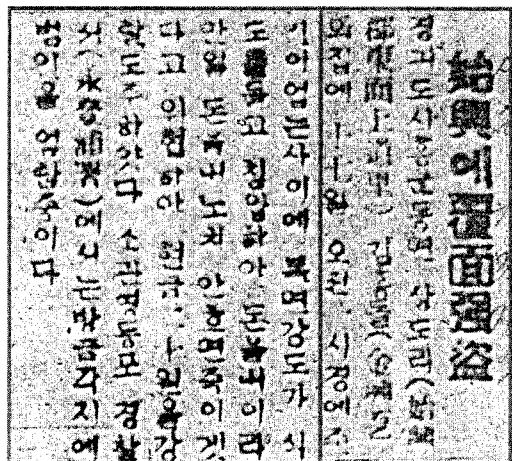
農產品評會盛況

봉화(시흥군동면)(始興郡東面)에
서는 지난 7일 동면주최로 시흥
공립보통학교(始興公立普通學校)
에서 농산물품평회(農產物品
評會)를 개최하였다는데 근래
에는 모임일뿐더러 제 2회 농
산물품평회이니 만치 대성황을
일우었다는 바 출품총점수는 3
백 88점으로 입상자수(入賞
者數)는 88인이라는 데 이 회
가 거듭 항복이라 일반농민에
만족도 우주리라고 한다.

농산 품평회성황

(시흥) 시흥군 동면에서는 지난 7일 동면주최로 시흥공립보통학교에
서 농산물품평회를 개최하였다는데 근래에 듬은 모임일 뿐더러 제 2
회 농산물품평회이니 만치 대성황을 일우었다는 바 출품 총 점수는
388점으로 입상자수는 88인이라는 데 이 회가 거듭 항복을 따라 일반농민
에게 만족 도움을 주리라고 한다.

▶ 1931.1.19(2)4



시흥에 복면강도

경기도 시흥군 동면 상도리 김홍들의 집에 오전 1시경에 주인이 업는 사이에 복면강도가 식도를 들고 침입하여 돈을 내이라 만일 돈을 내놓지 안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다 현금 20원을 강탈 도주하였다. 소관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방금 각지 범인을 염탐 중이다.

▶ 1931.3.3(7)5

百戶엔 小學校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한
始興玉鈞島教育實驗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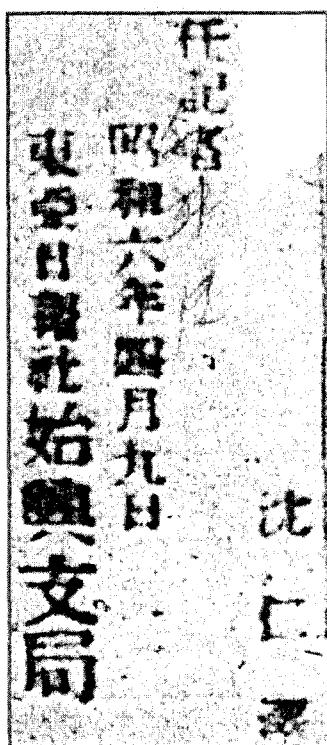
【시흥】 시흥군 군자면 옥구도 제씨가 열어하고 강습소집도 (始興郡 芸舟面 河口里)에는 조미군 광암면 대역 강습소내부 선이 이르면 21호로 일본인 충실케 할 계획을 세웠다 하얀 이리나 흰 가인을 한다. 그려 반은 큰 미루스고 있다 한다. 대 일본인은 학식하루 24명에 있으나 그 학생들은 교가 없다. 이에 분발한 유자정 총무 (鄭子敬) 박당한 심상소학교를 설립하고 이들도 조선인은 다수의 학생은 이들이나 그 학생들은 교가 있다. 이에 제씨를 교사로 교수케 하야 다수아 숙을 설치하고 청주식 (淸柱式) 박당한 심상소학교를 설립하고 중에 성적이 떨어져 학업에 제씨가 협의하고 강습소집도 속히 준공활뿐더러 강습소 내부도 충실히 계획을 세웠다 하여 일반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한다.

20호엔 소학교 100호엔 강습소

일본인과 조선인을 비교한 시흥 옥구도 교육기관 (시흥) 시흥군 군자면 옥구도에는 조선인이 1백 2십 5호요 일본인이 21호가 거주한다. 그러한데 일본인은 학생이 불과 10여명에 당당한 심상 소학교를 설립하고 있어도 조선인은 다수의 학생은 있으나 통학할 학교가 없다. 이에 분발한 유자정 총무 (鄭子敬) 박상운의 제씨가 협의하고 강습소집도 속히 준공활뿐더러 강습소 내부도 충실히 계획을 세웠다 하여 일반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한다.

다수아동에 성적이 떨어져 학업에 더욱 힘을 얻어 작년 11월에는 더욱 힘을 어더 사숙제를 고쳐 오이도학술강습소 (大伊島學術講習所)라고 당국에 신청하기로 하면서에 강습소에 신축하든 중 일기가 치워서 준공을 못하였든 바 지난 24일에 정춘근 박상운의 제씨가 협의하고 강습소집도 속히 준공활뿐더러 강습소 내부도 충실히 계획을 세웠다 하여 일반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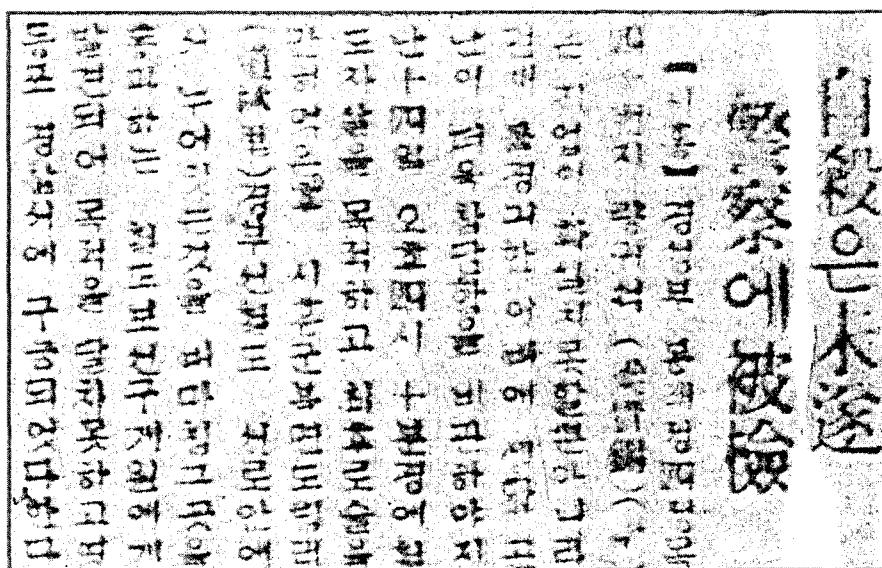
▶ 31.4.11



주제기자

소화 6년 4월9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임기자 민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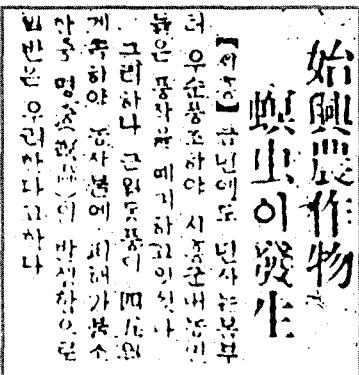
▶ 1931.5.19(7)4



자살은 미수 경찰에 피검

(시흥) 경성부봉래정 4정목 40번지 렁귀석은 직업이 확실치 못한 뿐 아니라 면내 물경귀한 이때에 생활 곤난이 더욱 참담함을 비관하여 지난 14일 오후4시 10분경에 침도자살을 목적으로 술을만히 먹은후 시흥군 북면 도립리 경부선 철도 선로안에서 누워잇는 것을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는 철도 보선구개원에게발견되어 목적을 달치못하고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되었다한다.

▶ 1931.7.1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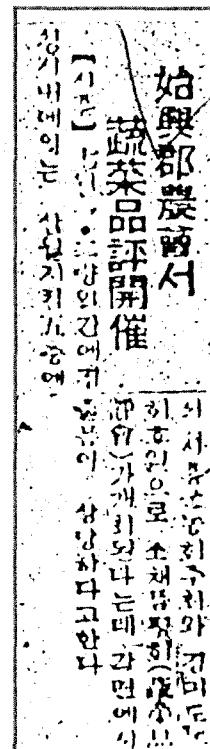
시흥 농작물 명충이 발생

(시흥) 금년에도 년사는 봄부터 우순풍조 하여 시흥군내 농민들은 풍작을 예구하고 잇섰다. 그러나 근일 동풍이 4,5일 계속 하야 농산물에 피해가 불소한중 명충이 발생함으로 일반은 우려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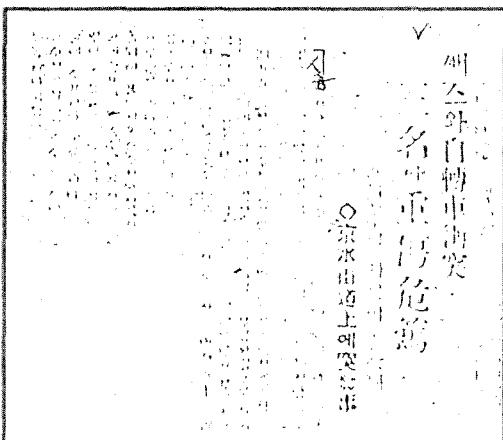
▶ 1931.7.5(5)10

시흥군농회서 소재품명 개최

(시흥) 7월 1·2양일간에 경성 시내에 있는 3월지점 5층에서 시흥군 농회주최와 경기도 농회 후원으로 소재품평회가 개최된다는데 각 면에서 출품이 상당하다고 한다.



▶ 1931.8.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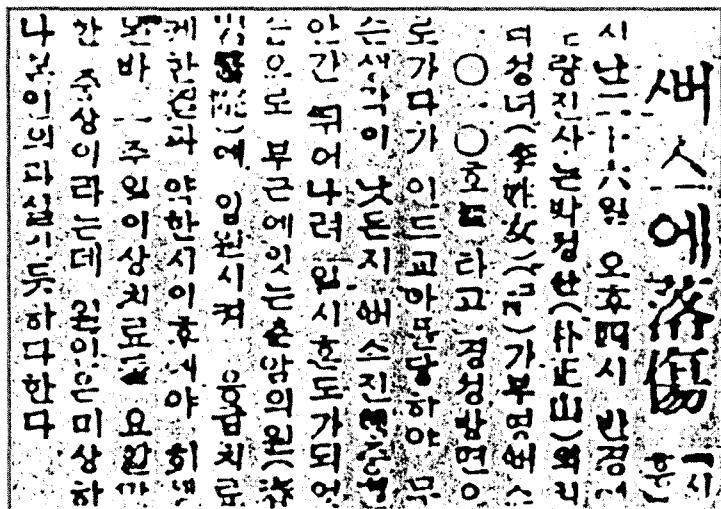


경인버스와 자전거 충돌

3명 중상위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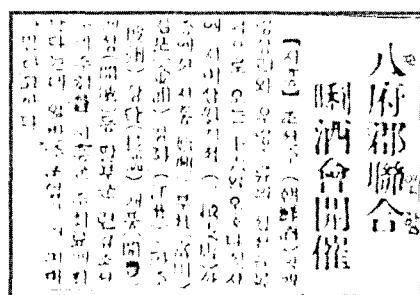
(시흥) 지난 29일 오전 열시 30분경에 경인버스 568호가 영등포를 떠나 경인가도 북면 번대방리 지점을 질주할 때에 마침 철도국화물자동차가 그 곳 와서 역시 경성으로 가고자 회전 할자리를 불행히 피차 충돌되어 경인버스 승객 중 임경재(57), 정민제(35), 고영기(50)등 3인은 면부와 두부에 삼일간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당하여 영등포 철도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각기 귀가하였다고 한다.

▶ 1931.10.3(2)10

**버스에 낙상**

(시흥) 지난 16일 오후4시 반경에 노량진 사는 박정선의 처 이성녀가 부영버스2 010호를 타고 경성방면으로 가다가 인도교 이풀 달하야 무슨 생각이 낫든지 버스 진행 중 별안간 뛰어나려 일시 혼도가 되었음으로 부근에 있는 춘암의원에 입원시켜 응급기로 한 결과 약1시 이후에 회생된바 일주일이상 치료를 요함만한 중상이라는데 원인은 미상하나 본인의 과실인 듯하다한다.

▶ 1931.10.13(2)5

**팔부군연합 리주회개최**

(시흥) 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랑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오는 16일 오후 5시에 시내삼월지점 사총에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풍 개성 등 팔부군 연합조선주리주회를 시흥군 주최로 개최 한다는데 일반주조업체의 기대가 만 타고 한다.

▶ 1931.10.22(7)1

**八府郡聯合
喇酒會盛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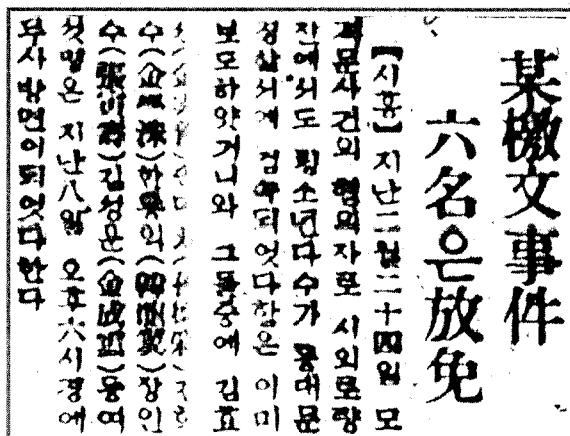
大英四國

(시흥) 시흥군주최로 시흥부천김포강화파주장단개봉개성에 팔부군이 (江華) 부천(昌川) 김포(金浦) 강화(江華) 파주(坡州) 장단(長安) 개봉(開封) 개성(開城) 개봉(開封) 개성(開城)	【시흥】 시흥군주최로 시흥부천김포강화파주장단개봉개성에 팔부군이 【江華】 부천(昌川) 김포(金浦) 강화(江華) 파주(坡州) 장단(長安) 개봉(開封) 개성(開城) 개봉(開封) 개성(開城)
주최한 회로 성대히 마치어 는데 수상자의 씨명급 상품은다 운마갖다	주최한 회로 성대히 마치어 는데 수상자의 씨명급 상품은다 운마갖다
喇酒 始興 須林 懶道 挑牛熙 樂酒 李昌云 始興 金漢國 開城 洞酒 金昌錫 始興 優等 上六人 各銀盃一組	喇酒 始興 須林 懶道 挑牛熙 樂酒 李昌云 始興 金漢國 開城 洞酒 金昌錫 始興 優等 上六人 各銀盃一組
喇酒 開城 開城 開城 懶道 挑牛熙 樂酒 朴佑來 坡州 李弼秀 金 仙子 元容 大江華 文花 仙子 開城 開城 開城 懶道 挑牛熙 樂酒 金漢國 開城 懶道 挑牛熙 洞酒 金昌錫 始興	喇酒 開城 開城 開城 懶道 挑牛熙 樂酒 朴佑來 坡州 李弼秀 金 仙子 元容 大江華 文花 仙子 開城 開城 開城 懶道 挑牛熙 樂酒 金漢國 開城 懶道 挑牛熙 洞酒 金昌錫 始興
喇酒 金浦 在 坡州 李弼秀 樂酒 開城 開城 懶道 挑牛熙 洞酒 金漢國 在 長安 和培內 總理會社 高川金復允 金正源 永一謹	喇酒 金浦 在 坡州 李弼秀 樂酒 開城 開城 懶道 挑牛熙 洞酒 金漢國 在 長安 和培內 總理會社 高川金復允 金正源 永一謹

팔부군 연합 리주회 성황

(시흥) 시흥군 주최로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장단 개봉 개성에 팔부군이 연합하여 조선주의 개량장려와 우랑주류의 선전을 목적으로 삼월지점 4층에서 리주회를 개최하였던 바 그 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6시경에 경기도 송본지사이하 각 부군 직원급 래빈들과 주조업 조합원 등 수백명이 회합하여 식이 잊은 후 산전 회장의 식사와 송본지사의 고사며 래빈들의 축사로 경기도 내에 8부군 연합조선주리주회를 제1회로 성대히 마치었는데 수상자의 씨명급 상품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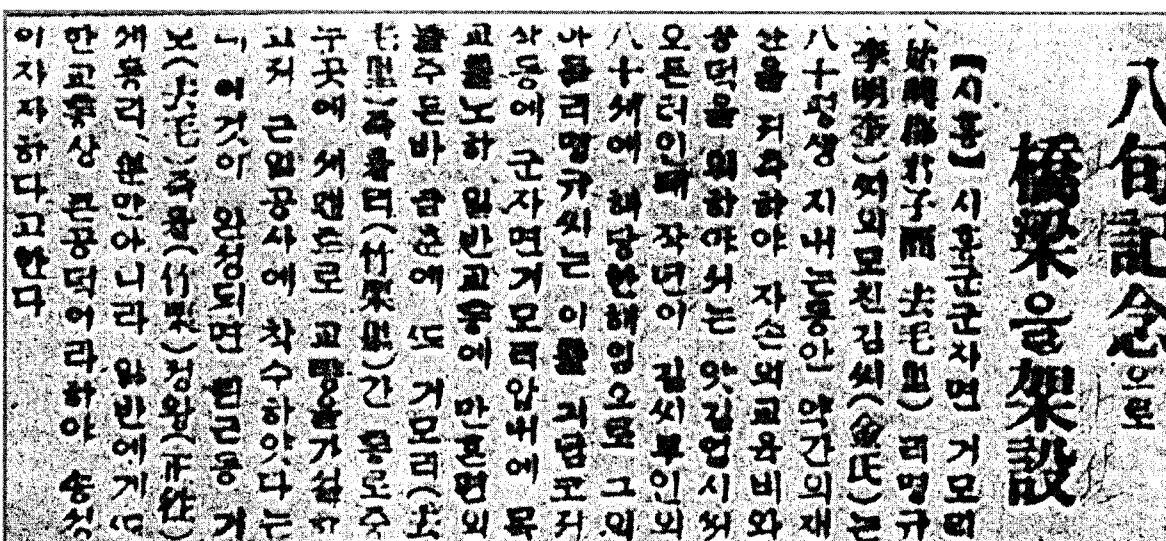
▶ 1932.3.12(2)5



모격문사건 6명은 방면

(시흥) 지난 2월 24일 모격문사건의 혐의자로 시외 노랑진에서도 청소년다수가 동대문 경찰서에 검속 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들 중에 김효선, 손덕채, 김학수, 한동익, 장인수, 김성운 등 6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경에 무사방면이 되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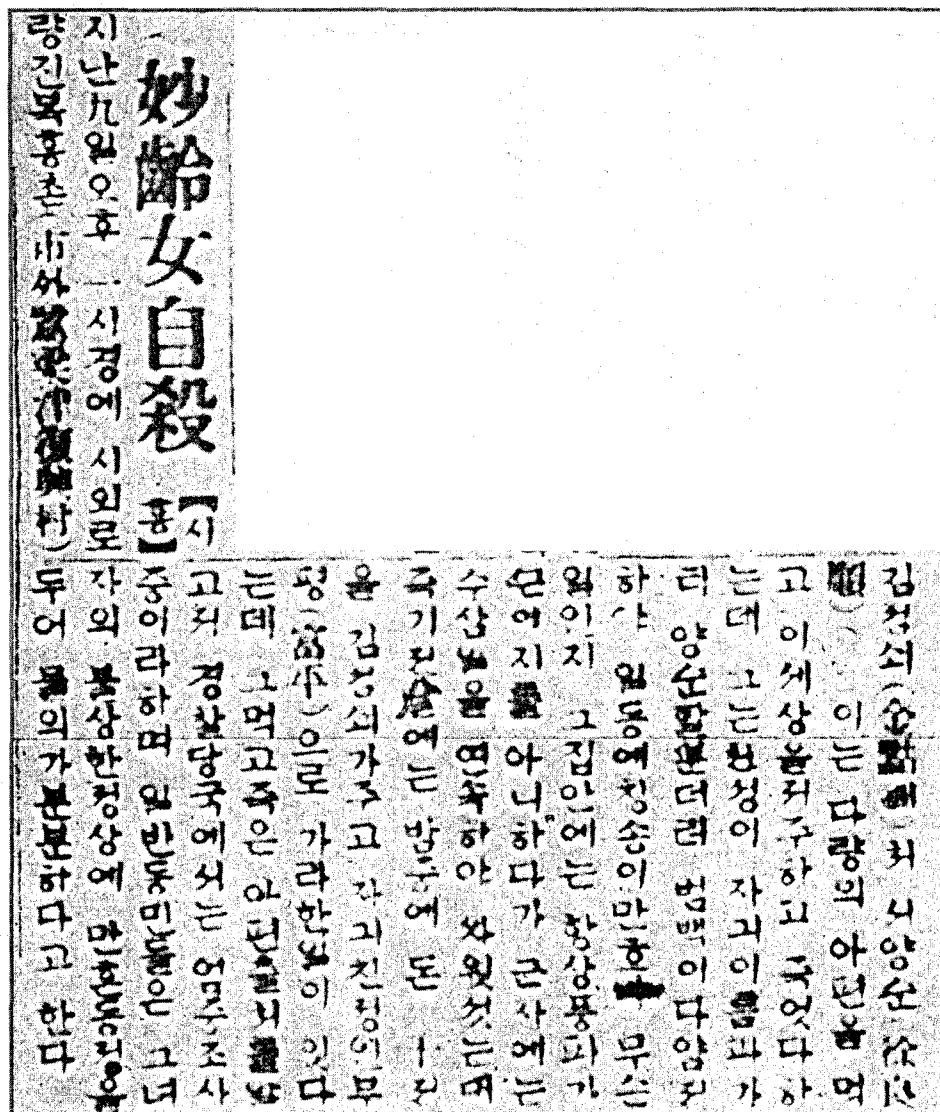
▶ 1932.3.13(2)10



팔순기념으로 교량을 가설

(시흥)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리명규씨의 모친 김씨는 80평생 지내는 동안 약간의 재산을 저축하여 자손의 교육비와 공덕을 위하여서는 잇김없이 써오던 터인데 작년이 김씨부인의 80세에 해당한 해임으로 그의 아들 이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자 삭동에 군자면 거모리 압내에 목교를 노하 일반 교통에 만족할 수 있는 바 금운에 놓고자 죽률리 간 통로중 두 곳에 세멘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자 근일 공사에 착수하였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동 거모, 죽률, 정왕 세 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송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 1932.6.12



묘령여 자살

[시홍] 지난 구일 오후 한시경에 시외로 망진 김점쇠 처 서양순이는 디랑의 아편을 먹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죽었다하는데 그는 천성이 자기 이름과 같이 양순할뿐더러 범백이 다암전하야 일동에 칭송이 만호나 무는 일인지는 그 집안에는 항상 풍파가 일어지지 아니하다가 근자에는 수삼월을 연속 하여 죽었는데 죽기 전날에는 밤중에 돈을 김점쇠가 주고 자기 친정이 부정(不正)으로 가라한 것이다. 그는 고작 경찰당국에서는 업종 조사 중이라 하여 경찰당국에서는 그녀의 불상한 행상에 험한 의혹을 두어 물의가 분분하다고 한다.

▶ 1932.8.12(7)9

蠶室里의 生命線

防坡林을 拂下!

리권자의 금후 태도에

住民의不安頗沸騰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잡실리 경기도로부터 그 지방의 보안방
 (始興郡新東面蠶室里) 백여호 대촌은 한강 연안에 있어서도 아무 제방이 업어서
 촌은 한강 연안에 있어서도 아모제 방파림(防坡林)을 상당
 방이 업어서 년년히 홍수 때에는 그 후로는 홍수 때에 주민들에게
 참담한 위경을 면 키가 어려웠다 큰 위안과 보호가 될뿐더러 인근
 그리하여 일반 주민들은 위급할 때에는 일대 풍치림(風致林)
 떠는 이곳에서 다시는 아니 살겠이 되여 있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다고 맹세하고도 날만 개이면 하고 군당국으로서는 무슨 선후책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방파림을 불하처분 한다
 자연이 직업의 속박으로 어찌 할 책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방파림을 불하하였다가는 리권자로 수
 립을 작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사활의 문제라 하야 중대시하고 있다한다.
 수업시 살아오든 위험한 지대이 립을 불하처분을 한다 하야
 다 그럼으로 거금二十여년전에 주민들은 만일 당국으로서 무조반

잡실리 생명선 방파림을 불하

리권자의 금후 태도에 주민의 불안파 비등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잡실리 백여호 대촌은 한강 연안에 있어서도 아무 제방이 업어서 년
 년히 홍수 때에는 참담한 위경을 면 키가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 주민들은 위급할 때는
 이곳에서 다시는 아니 살겠다고 맹세하고도 날만 개이면 자연히 직업의 속박으로 어찌 할
 수 없이 살아오든 위험한 지대이다. 그러므로 거금 20여년 전에 경기도로부터 그 지방의
 보안 방침으로 방파림을 상당한 장거리에 조립하여 잊음으로 그 후로는 홍수 때에 주민들
 에게 큰 위안과 보호가 될뿐더러 인근 지방에는 일대 풍치림이 되어 잊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으로서는 무슨 선후책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방파림을 불하처분 한다
 하야 일반 주민들은 만일 당국으로서 무조건 하에 이 방파림을 불하하였다가는 리권자로 수
 립을 작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사활의 문제라 하야 중대시하고 있다한다.

건 하에 이 방파림을 불하 하였다
 가는 리권자로서 수립을 작별하
 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사활의 문
 제라 하야 종대시하고 있다한다

▶ 1932. 10. 23(2)9

시흥읍에서 수류탄폭발

한동안 경찰이 일대 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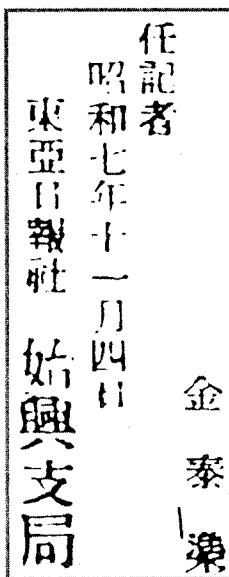
농부 1명 실명증상

동경방면에서 적색「테로」단의 은행습격사건이 잇순 이 후 조선의 경찰들도 시절이 시절이라 그방면에 대한 경계가 엄중한이때에 시흥군 북면 구로리에서 수류탄한개가 터져서 청년 한명이 중상을 당하였음으로 충북부 경무국에서는 크게 긴장되어 보안과의 안동 기사로 하여금 동수류탄과 그 부근의 정세를 조사케 한 일이 있었다 한다.

일이 있었다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20일 오후 1시경

인데 전기한 구로리 2백 18번지 김영계의 4남 김삼만이가 자기의 농에 나가 벼를 비려하다가 눈 가운데 수류탄이 떠러져 있음을 발견하고 하도 이상하여 담배불로 심지에 불을 끄려 노렸던바 그 즉시로 폭발되어 크게 화상을 당하였다한다. 그 까닭에 두 눈이 실명되고 수족이 모두 상하앗스며 얼굴도 몹시상하여 방금 적십자병원에서 치료중이라 한다. 금 22일에야 안동기사가 확실히 김정한 결과 미리서 놀라어든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고 전번 육국 연습때에 뛰어나간 육군연습용 수류탄인 것이 판명되었다 한다.

▶ 1932.11.14(4)



동아일보사고 임기자
김태영

소화 7년 11월 4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 1933.1.26(3)

秀山君子間 橋梁工事着手

【시흥】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 (始興郡秀山面水岩里) 부터 군자면 거모리 (君子面巨毛里) 가 지연면 연장리 (連長里) 등 외부로 풍차는 소화 6년 7월경 부군에 부터 공사에 대하야 총공사 라니. 월까지 반년동안을 두고 비 1천 1백 원으로 둘산사는 포 량면의 면민들은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부역으로 준공은 하였으나 도로구간 내에 허다한 암거와 교량등 공사는 공사비 외 준공은 하였으나 도로구간 내에 오는 4월내로 완전한 군공을 보 보다한 암거와 교량등 공사는 공려라 한다. 사비의 관계로 약 1년이나 휴게된다.

연해야 완전한 도로의 가치를 갖지 못함으로 자연 교통 상 막대한 영향을 바더 지방군의 지향이 불소하였다니 지난 20일 시흥군에 부터 공사에 대하야 총공사에 착수하였다. 월간공사에 착수하여 5천 9백 원으로 용산사는 포원모에게로 낙찰이 되었다 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여오는 4월내로 완전한 군공을 보리라 한다.

수암군자간 교량공사착수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로부터 군자면 거모리까지 연장리 32정기의 등외 도로 공사는 소화 6년 7월경부터 12월까지 반년동안을 두고 량면의 면민들은 지방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부역으로 준공은 하였으나 도로구간 내에 허다한 암거와 교량등 공사는 공사비 외 관계로 약 2년 간이나 천연하여 완전한 도로의 가치를 갖지 못함으로 자연 교통 상 막대한 영향을 바더 지방발전의 지향이 불소하였다니 지난 20일 시흥군에서 동공사에 대하야 총공사비 5천 9백 원으로 용산사는 포원모에게로 낙찰이 되었다 하며 일간공사에 착수하여오는 4월내로 완전한 준공을 보리라 한다.

▶ 1933.1.27(3)4

始興에 화재

【시흥】 지난 25일 오후 10시 15분에 시흥군 북면 본동리 가가 불을 피다가 실화하여 불은 때마침 서북풍을 응하여 화세가 맹렬히 허려 할때 로랑진 소방활동으로 다행히 초기 여섯간만을 태우고 동 1시경에 진화하였다 한다.

► 1933.3.5(3)7

始興에 도 天然痘
【시흥】 각지를 유행하든 천연
두(天然痘)는 원경시 흥군(興郡)
에 도 치하였하고 밟았다. 지난
일동군 무연번에 방리(北面番
大方里)…… ○ 번지보설(文正
熙)라 농군 두살도 거집아이와 식
면소하리(西面所下里) 정질로
(鄭子昌)이란十六세된 사내아이
외두환자로 발견하였다 한다

시흥에도 천연두

(시흥)각지를 음습하는 천연두는 필경 시흥군에도 침입하고 말았다. 지난 1월 동군 북면 번대방리 220번지 문정희관 당년 12살된 계집아이와 서면 소하리 정길통 이란 16세된 사내아이의 두환자를 발견하였다 한다.

▶ 1933.3.13(2)10

【시홍】 시홍은 군자연 거모리
姑母柳子而去毛里) 라명규
李明圭(서의모친김씨(金氏))는
八十高生(지내는 동안) 약간의 재
산을 소득하여 자손의 교육비와
정례을 위하여서는 앗길업시켜
오돈리인제(작금이 길지부인의
十八세에 해당한 해임으로 그의
아들리 영규씨는 이를 계급고지
작동에 군자연거모리 암내에 목
교를 노하 일간교종에 마흔년의
을수문바 금운에 도거모리(去
毛里) 즉 유토(竹東里) 간 풍로주
두곳에 세번으로 교향을 가설하
고자 근일공사에 차수하였다는
이것이 완성되며 훈근동 거
보(居保)의 유토(竹東) 정왕(正往)
제통리(副統리)이라 일간하게
한 교육상 관공례이라 하여 송정
이자자하다고 한다

八旬記念

팔수기념 교량 가설

시흥군 군자면 거모리 이명규씨의 모친 김씨는 80평생 지내는 동안 약간의 재산을 저축하여 자식의 교육비와 공덕을 위하여서는 아낌없이 써오든 터인데 작년이 김씨부인의 80세에 해당한 해임으로 그의 아들 이명규씨는 이를 기념코자 산동에 군자면 거모리 앞내에 목교를 놓아 일반 교통에 많은 편의를 주는 바 금춘에 또 거모리 죽율리 간 통로 중 두 곳에 세멘트로 교량을 가설하고자 근일 공사에 착수하였다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린근통 거모죽 율정왕 세동리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또한 교통 상 큰 공덕이라 하여 솔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 1933.3.14(3)4

始興農村振興 [시흥농촌진흥]

시흥군수 암자로 기록된 「始興農村振興」은 1933년 3월 14일에 설립된 후 류지연, 신만철, 양씨의 지도하에 회원활동은 부업으로 제승하기를 일심 단결하여 농임업은 공동기업으로 불과 4개월 동안에 판매 수입된 금액이 6백여원에 달한 큰 수확을 하였다하며 또 신호종을 설치하고 조기회까지 조직 여행 하여 참으로 리상촌의 색채가 있다한다.

시흥농촌진흥

(시흥)시흥군 수암면 목감리 목감진흥회 44호는 작년 11월 5일에 설립한 후 류지연, 신만철, 양씨의 지도하에 회원활동은 부업으로 제승하기를 일심 단결하여 농임업은 공동기업으로 불과 4개월 동안에 판매 수입된 금액이 6백여원에 달한 큰 수확을 하였다며 또 신호종을 설치하고 조기회까지 조직 여행 하여 참으로 리상촌의 색채가 있다한다.

▶ 1933.3.25(3)4

始興에 大火 養蠶室을 全燒

損害는 一萬四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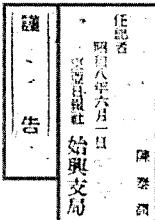
【시흥지국전화】 시흥군 신동면 소하고 동6시경에 친화하였다 면감실리(始興郡新東面昭化里) 노량진 소방대와 소방고소방
十三出치 양작업하는 삼정위우 대가 출동하였으나 벌효과를
井底(井底)의 집두에 치는 이충지 못하고 동가옥을 진소하였는
에서 24일 오전 3시 반에 발대소해는 2만4천원 가량이 오
파 화하여 60여평되는 이충작실화재원인은 아직 알주업스나 경
파 50여평되는 주택을 전
에 친화한 후 류지연, 신만철, 양씨의 지도하에 회원들은 부업으로 세습자
를 일선단전하여 연합에는 광동
사업으로 불과 4개월 동안에
매수된 금액이 6백여원에
한 큰 수확을 하였으나 아미
죽여행해야 참으로 대상주의
채가 있다 한다

시흥에 대화양잠실을 전소

손해는 1만4천원

(시흥지국전화)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13번지 양잠업하는 삼정위우의집 누에치는 2층에서 24일 오전 3시30분에 발화하여 60여평되는 2층 잠실과 초기 50여 평되는 주택전소하고 동6시경에 진화하였다. 노량진 소방대와 소방고 소방대가 출동하였으나 별효과를 엿지 못하고 동가옥을 전소하였는데 손해는 1만4천원 가량이고 화재원인은 아직 알 수업스나 경찰은 동가옥 주인을 소환하고 조사중이며 동가의 보험은 1만원에 드렸다한다.

▶ 1933.6.8(3)12



고고

임기자진태운
소화팔년유월일일
동아일보사 시흥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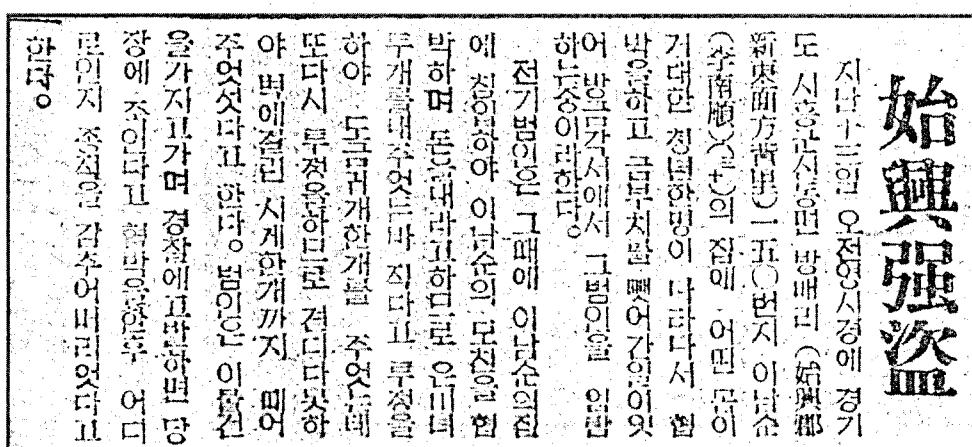
▶ 1933.10.17조(5)8



잡실리 각회대회

[시흥] 시흥군 신동면 잡실리는 조선고대로 씨름에 유명한 역사를 가진 지방이다. 겸하여 금년에 시화년풍물을 만나 자축하는 의미에서 동민주최로 오는 음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39일간을 두고 그동리앞에잇는 한강반대시장에서 잡실리 각회대회를 성대히 개최한다는데 일반은 물론 신진역사들이 많이 참가하기를 바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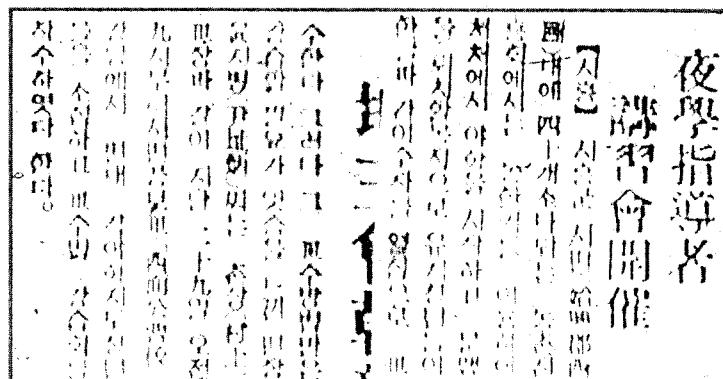
▶ 1933.11.15(2)6



시흥강도

지난 13일 오전 영시경에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 150번지 이남순(30)의 집에 어떤 물이 거대한 청년한명이 나타나서 협박을하고 금부지를 뺏어간 일이 있어 방금각서에서 그범인을 입증하는 중이라 한다. 전기범인은 그때에 이남순의 집에 침입하여 이남순의 모친을 협박하며 돈을내라고 하며 돈을내라고 하면 두개를내주었든바 직답고 루정을 하여 도금귀개한개를 주었는데 또 다시 루정을하므로 견디다못하여 벽에 걸린 시계한개까지 때어 주었으나 그한당 범인은 이를 건을 가지고 가며 경찰에고발하면 당장에 주아타고 혐방을당후 어디로인자 종적을감추어버리었다고 한다.

▶ 1933.12.4(3)1

**야학지도자 강습회 개최**

(시흥) 시흥군 서면 내에 40개소나 되는 농촌진흥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처처에서 야학을 시작하고 문맹을 퇴치할 목적으로 유지청년들이 한글과 간이 수자를 열심히 교수한다. 그러나 그 교수 방법만은 강습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 면장 윤지병씨는 촌상 교장과 같이 지난 29일 오전 9시부터 서면 공보교 강당에서 면내 각 야학지도 청년들을 소집하고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한다.

[시흥] 시흥군 신동면 賀浦郡西

新東野菜組合 신동에서 창립

유서 이영섭 李英燮
한국 韓國

대홍(韓大欽) 아래홍(李台鶴) 씨 등
의 발기로 동면 반포리(盤浦里) 잠실리(蠶里里) 야채업자 70여인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경에 잠실리 홍동학교(興東學校) 내에 회집하여 신동야채홍산조합(新東野菜興產組合)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영섭씨 사회 하에 취지 설명파·규약통파가 잇으루 다 음파 같이 역원을 선거하였다는데 반포리와 잠실리는 지리상 경성인접지로서 토질이 천연적으로 야채재배에 용도일뿐더러 농업의 고심노력이 충분하여 경작 면적 1백 5십정보 미만에서 연산액 1십만원에 달하는 우량한 수입성작물을 나다낸다. 아직까지 지도통제는 한두 기관이 없으므로 종자비료등 구입파 생자애파 등에 대하야 자연종실파 물품이 많으므로 이 조합 창립기한 것이라고 한다.

신동야채조합

신동에서 창립
시흥군 신동면 유지 이영섭 한대홍 이태춘씨 등의 발기로 동면 반포리, 잠실리 야채업자 70여인이 지난 23일 오후 2시 경에 잠실리 홍동학교 내에 회집하여 신동야채홍산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영섭씨 사회 하에 취지 설명과 규약

통과가 있은 후 다음과 같이 역원을 선거하였는데 반포리와 잠실리는 지리상 경성인접지로서 토질이 천연적으로 야채재배에 욕토일뿐더러 농업의 고심노력이 충분하여 경작 면적 1백 5십정보 미만에서 연산액 1십만원에 달하는 우량한 수입성작물을 나타내나 아직까지 지도 통제하는 기관이 없음으로 종자비료 등 구입과 생산액 판매 등에 대하여 자연 손실과 불편이 많음으로 이 조합을 발기 한 것이라고 한다.

▶ 1934.2.1(2)7

青年飲毒自殺

【시연】 영등포역(永登浦驛) 충장동에

에 있는 제일화원第一醫院(제일화원)은 지난 29일 오후 3시경 목욕을 갖다 온후 즐지에 고민하므로 음독한 줄 알게된 가족은 물론 동의원의 의사는 대경하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이 31일 오전 7시경에 드디어 사망하였다 한다. 그는 편모술하에 아직 취임치 아니한 진실한 청년이라는데 무슨 사정으로 주검의 길을 밟았는지 유서 한 장 없이 음독이후 말까지 없었으며 먹은 독약조차 미상하고 원인은 빙금 조사중이라고 한다.

청년 음독사살

영등포역에 있는 제일의원사무원 최선경(22)은 지난 29일 오후 3시경 목욕을 갖다 온후 즐지에 고민하므로 음독한 줄 알게된 가족은 물론 동의원의 의사는 대경하여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이 31일 오전 7시경에 드디어 사망하였다 한다. 그는 편모술하에 아직 취임치 아니한 진실한 청년이라는데 무슨 사정으로 주검의 길을 밟았는지 유서 한 장 없이 음독이후 말까지 없었으며 먹은 독약조차 미상하고 원인은 빙금 조사중이라고 한다.

▶ 1934.7.20(5)4

【시흥에 전기설치】 시흥에 전기설치는 경부선 부근의 도시로 영등포 일대의 발전에 따라 공업지대 확장과 더불어 전기설치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특히 전기가 시설되지 못한 경부선 부근으로 금번에 경부선에서도 동지에 전기 가설의 필요로 여의도 지방유지제 쪽으로 이어져 얼마전부터 그 공사를 하여 지난 15일부터 전기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시흥군 철도부에 전기설치가 완료된다.

시흥에 송전

(시흥) 경부선 시흥역 부근은 요지로 영등포일대의 발전에 따라 공업지대 확장과 함께 경성방직회사 제시공장 건축공사를 하여 장래가 축당되는 터인대 이태까지 전기가 시설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기는 지방유지 제씨는 맹렬한 운동으로 금번에 경성방직에서도 동지에 전기 가설의 필요를 느끼며 얼마전부터 그 공사를 급히 하여 지난 15일부터 공사를 한다. 이로써 시흥군 철도역에는 전부전기시설이 완성된다고 한다.

▶ 1934.12.11

永登浦多年懸案인 地下道開鑿問題

◇ 또 다시 주민간에 대두하여

公職者等連署로陳情

(시흥) 신종공업도시로 장족의 발전을 보고 있는 영등포(永登浦)에 10여년 전부터 중대현안으로 잇는 역구내지하도 개척문제는 이래 5.6차나 철도당국에 진정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일관은 당국의 무성의 합을 향상 비난하야 오던 터인데 근래에는 한국의 무성의 합을 향상하려는 한류가 있다.

남하야 오른 데에 근래에 10개월 계속사업으로 명춘 3월에 준공되는 재방공사를 비롯하여 한강치수 공사, 경성영등포간 의왕성 한강으로 교의 개체(架替) 등 경비 7백여만원의 팔영공사가 착착진행되는 한편에 종방(鐵筋) 약 3만톤의 무성의 합을 향상비로 전부과금액 15만원의 약 3만원의

당국에 연명으로 면세신장을 하여 다른 바 판계당국에서 세밀히 조사한 결과 1월수 2백 31인 정보 만 9천 4백 55원으로 결정하였다. 특수면세 2만여원을 합하면 총 면세액은 실제로 4만여 원으로 전부과금액 15만원의 약 3분지 일이나 된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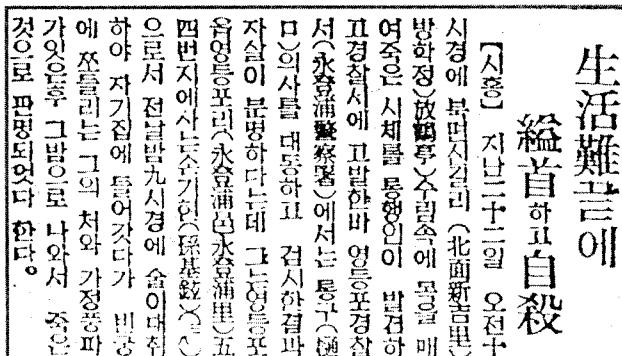
영등포 다년 현안인 지하도 개척 문제

또 다시 주민간에 대두하여 공식자 등 연서로 진정

(시흥) 신종 공업도시로 장족의 발전을 보고 있는 영등포에 10여년 전부터 중대현안으로 잇는 역구내 지하도 개척문제는 이래 5.6차나 철도 당국에 진정을 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일관은 당국의 무성의 합을 향상 비난하야 오던 터인데 근래에는 한국의 무성의 합을 향상하려는 한류가 있다.

교의 개체 등 경비 7백여만원의 관영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한편에 종방 동방의 진출이 확정되고 기타 각종 유수한 공장들이 접종 진출된다는 설이 잇게되자 인구가 격증하여 실로 놀랄 만치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영등포는 경부 경인 철도가 시기의 중앙을 관통하여 양쪽으로 쪼기여 있는 시기와 시가 당국에 연명으로 면세 신장을 하였든바 관계당국에서 세밀히 조사한 결과 총면적 291정보 인원수 232인 면세총액 1만 9천 4백 55원으로 결정하였다. 특수면세 2만여원을 합하면 총 면세액을 실로 4만여 원으로 전부과금액 15만원의 약 3분지 일이나 된다한다.

▶ 1934.12.25(5)4



생활난 끝에 액수하고 자살

(시흥) 지난 22일 오전 11경에 북면 신길리 수립속에 목을 매어 죽은 시체를 동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발한바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통구의사를 대동하고 검시한 결과 자살이 분명하다는데 그는 영등포을 영등포리 54번지에 사는 손기현 (38)으로서 전날밤 9시경에 술이 대취하여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빈궁에 쪼들리는 그의 처와 가정 풍파가 잇은 후 그방으로 나와서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다.

▶ 1935.2.4(4)8

九百餘貧民同情

兩氏의 喜捨金으로

수일전영포(永豐浦)

실업가 이창훈(李昌訓)씨로부터

금3백원 유지 김주연(金周淵)씨

로부터 금3백원을 각각 축내하고

아계당(二階堂) 영등포경찰서장

을 방문하고 구년 말에 주위와 풀

주립에 해매는 불상한 비민동포

게 다만 쌀한되씩 아파도 나누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동서에서

는 갑격에 넘치어 주사판내크빈자

를 조사한바 구제를

오하드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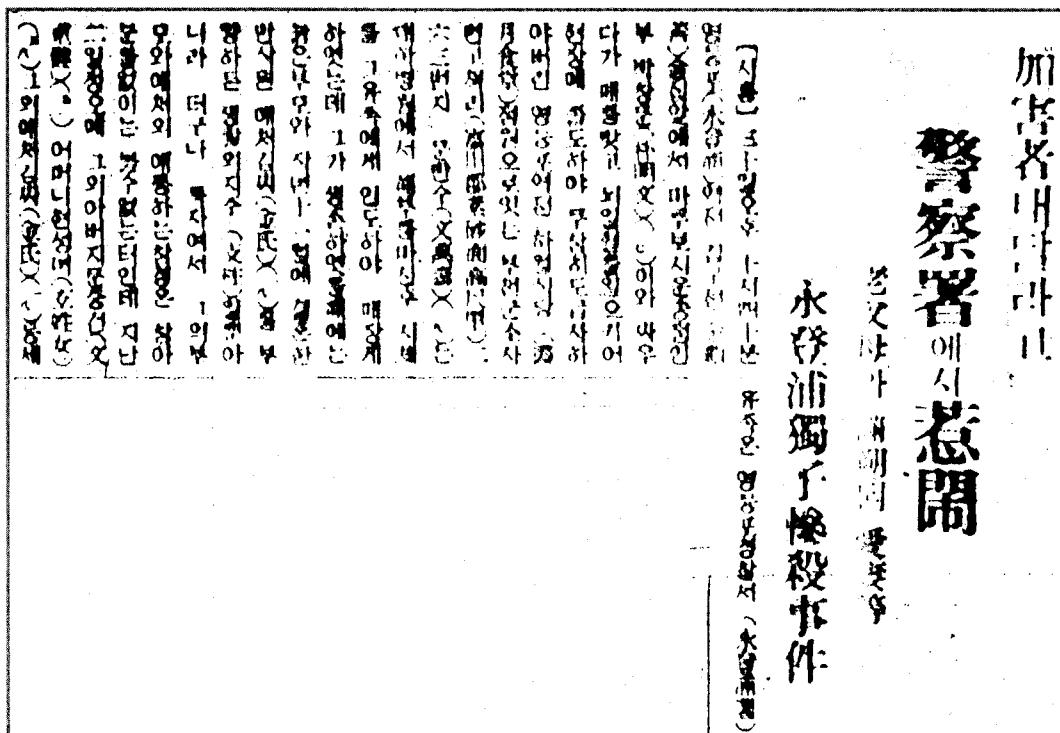
가 2백호에 인구가 9백여인이
나 되므로 백미3두5가마니를 사서
다니 주기로 되었는데 예상외에
비곤자가 많다는 데로 이창훈
(李昌訓)씨는 다시 지난 2월오
전 중에 50전 은화 2백매 함께
백원을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30
가마니의 쌀로 2백호나 나누어 준다
니얼마식이나 차례로 가겠습니다.
내년 하약 소하지만 이 돈으로 고
장하고 겨우 오늘의 지팡을 담을고
내에서 유통한 실업가로서 3남지
방수해 와 판서지 받을 수 해 어제면
에게도 수3백여 동정들을 정서하
였고 내년 말 궁핍 구제는 매년 연중
항사로 계속 하야 솔선신시하여 온
하고 있다.

양씨의 희사금으로

(시흥) 수일전 영포 실업가 이창훈씨로부터 금 3백원 유지 김주연 씨로부터 금 3백원을 각각 축내하고 이 계당 영등포 경찰서장을 방문하고 구년 말에 주위와 주립립에 해매는 불상한 비민동포가 다만 쌀 한 되씩이라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동서에서는 갑격에 넘치어 주사판내크빈자로 조사한바 구제를 오하드호수

여주십시요하고 말기고 강으로 경
찰서에서는 더욱 강격하여 동이정
에 군민들을 전보로 동서 구내에도
아노고 하시 밭앞에 백미 두 되씩
한호에 헌다 50전을 각각 둘째 하
여주었는데 일바흐전기양씨의 동
정성질정성을 무수히 치한다 하며
특히 이창훈(李昌訓)씨는 원래 빈
집에 살았지만 그의 부친은 예상외에
나 되므로 백미3두5가마니를 사서
다니 주기로 되었는데 예상외에
비곤자가 많다는 데로 이창훈
(李昌訓)씨는 다시 지난 2월오
전 중에 50전 은화 2백매 함께
백원을 경찰서에 가지고 와서 30
가마니의 쌀로 2백호나 나누어 준다
니얼마식이나 차례로 가겠습니다.
내년 하약 소하지만 이 돈으로 고
장하고 겨우 오늘의 지팡을 담을고
내에서 유통한 실업가로서 3남지
방수해 와 판서지 받을 수 해 어제면
에게도 수3백여 동정들을 정서하
였고 내년 말 궁핍 구제는 매년 연중
항사로 계속 하야 솔선신시하여 온
하고 있다.

▶ 1935.11.5(2)



가해자 내달라고 경찰서에서 야료

노부모와 만식된 애처 등
영등포 독자침살사건

(시흥) 30일 오후 10시40분 영등포 역전 김구선술집 앞에서 마루보시 운송점 인부 박창문이와 싸우다가 매를 맞고 뇌일혈을 일으키어 현장에 졸도해야 무참히도 급사하여 버린 영등포역전 하월식당 점원으로 잇는 부천군 소사면 고척리 263번지 문민수는 대학병원에서 해부를 마친 후 시체를 그 유족에게 인도하야 매장케 하였는데 그가 생존하였을 때에는 늙은 부모와 작년 십일월에 결혼한 만삭된 애처 김씨를 부양하는 생활의 지주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독자여서 그의 부모와 애처의 애통하는 참경은 참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터인데 지난 2일 정오에 그의 아버지 문중건 어머니 현성녀 그의 애처 김씨 등 세 유족은 영등포경찰서의 사법주임을 찾아 와서 대성통곡을 하며 가해자 박가를 내어주면 당장에서 잡아먹겠다고 약단을 쳐서 사법계원들은 머리를 알타가 보냈다고 한다.

▶ 1935.11.20

무면히 운전수트락 조종타격인

(시흥) 24일 오후 6시 10분 영등포 종방 건축공사를 마친 다전공무소 모래운반용트락 경제7035호를 운전수 강기순(康基順) 순이가 모래를 부리고 정거하 (은)이가 모래를 부리고 정거하 여둔것을 조수로잇는 흥경(洪慶)이 (洪慶)이가 인부그인을 태워가 지고 한강제방아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여 조종하여 간다가 경선 출장소(京電出張所) 앞을 지날지 음에 그는인의 친구들과 전기 장소를 지나가든 읍내당산리(京山里)一里七十번지 경성연화(京蓮)작공 박원선(朴元善)을 겨다가 읊금치료를 하였으나 머리를 뭉시 다치어 출혈이 만히 되었으므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시흥】 二四일 오후 六시十分
영등포(永登浦) 종방(總防)간
속공사를 마친 다전공무소(多田工務所) 모래운반용트락 경제7035호를 운전수 강기순(康基順)을 조수로 잇는 흥경(洪慶)이 (洪慶)이가 인부그인을 태워가 지고 한강제방아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여 조종하여 간다가 경선 출장소(京電出張所) 앞을 지날지 음에 그는인의 친구들과 전기 장소를 지나가든 읍내당산리(京山里)一里七十번지 경성연화(京蓮)작공 박원선(朴元善)을 겨다가 읊금치료를 하였으나 머리를 뭉시 다치어 출혈이 만히 되었으므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無免許運轉手
드락操縱다iker人

【시흥】 二四일 오후 六시十分
영등포(永登浦) 종방(總防)간
속공사를 마친 다전공무소(多田工務所)

【무면히 운전수트락 조종타격인】

(시흥) 24일 오후 6시 10분 영등포 종방 건축공사를 마친 다전공무소 모래운반용트락 경제7035호를 운전수 강기순이가 모래를 부리고 정거하여 조수로 잇는 흥경유가 인부2인을 태워가 지고 한강제방아래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여 조종하여 간다가 경선 출장소 앞을 지날 즈음에 2,3인의 친구들과 전기장소를 지나가든 읍내당산리 170번지 경성연화 작공 박원선을 치워 너머트려서 인사불성이 된 것을 즉시 제일의원(第一醫院)에 데려온다. 박원선은 대정十四년 四月에 부임한이래 十여년간 만흔아 동교육에 진련하여 훌륭아니라 자 방발전상에도 공헌이 만여승을 고맙게 생각한 당시유지 강정원(姜貞元)류기령(柳基榮) 외제씨의 발기로 지난二十七일 오후二시부터 림교장근속 十주년 기념축하회를 개최하고 씨의 공로를 감사하는 동시에 회중금시계를 증정하였다.

▶ 1935.12.31(4)

【영등포】 시흥군(始興郡) 안산 공립보통학교(安山公學校) 교장림 호장(林虎藏)씨는 대정十四년 四月에 부임한이래 十여년간 만흔아 동교육에 진련하여 훌륭아니라 자 방발전상에도 공헌이 만여승을 고맙게 생각한 당시유지 강정원(姜貞元)류기령(柳基榮) 외제씨의 발기로 지난二十七일 오후二시부터 림교장근속 十주년 기념축하회를 개최하고 씨의 공로를 감사하는 동시에 회중금시계를 증정하였다.

【영등포】 시흥군(始興郡) 안산 공립보통학교(安山公學校) 교장림 호장(林虎藏)씨는 대정十四년 四月에 부임한이래 十여년간 만흔아 동교육에 진련하여 훌륭아니라 자 방발전상에도 공헌이 만여승을 고맙게 생각한 당시유지 강정원(姜貞元)류기령(柳基榮) 외제씨의 발기로 지난二十七일 오후二시부터 림교장근속 十주년 기념축하회를 개최하고 씨의 공로를 감사하는 동시에 회중금시계를 증정하였다.

安山普校長 勤續十週年記念

▶ 1936.2.27(2)4

【영릉우자전화】 작 25일
오후 11시 반경에 시흥군 북면 전
대방리 우와피동(北面大
方里牛臥皮洞) 잡화상
한총삼(韓宗三)은 방에 3인조
강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
고 하였는데 나가본즉 강도들은 길이 8촌 가량의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이의
다리를 찔러 원편 다리에 중상을 입히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마저도 헛되였던가
지 허리띠로 묶어서 방안으로 드러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마저도 헛되였던가
라며 대방리 양초를 달라고 하였다.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이의
다리를 찔러 원편 다리에 중상을 입히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마저도 헛되였던가
라며 대방리 양초를 달라고 하였다.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이의
다리를 찔러 원편 다리에 중상을 입히었다.

【영릉우자전화】 작 25일
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
대방리 우와피동(北面大
方里牛臥皮洞) 잡화상
한총삼(韓宗三)은 방에 3인조
강도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
고 하였는데 나가본즉 강도들은 길이 8촌 가량의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이의
다리를 찔러 원편 다리에 중상을 입히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마저도 헛되였던가
지 허리띠로 묶어서 방안으로 드러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마저도 헛되였던가
라며 대방리 양초를 달라고 하였다.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이의
다리를 찔러 원편 다리에 중상을 입혔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마저도 헛되였던가
라며 대방리 양초를 달라고 하였다.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이의
다리를 찔러 원편 다리에 중상을 입혔다.

主人의 大腿骨를 刺傷

一家五名을 結縛、現金을 強盜侵人

始興牛臥皮雜貨商에 短刀三人強盜侵人

까지 허리띠로 묶어서 방안으로 드러가자고 하여 그 집 식구 5명을 모조리 결박지어 놓고 전기를 끈 후에 현금을 내라고 강요하였다. 금궤 속에서 현금 10원 75전을 받아 가지고 범인들은 어디로 인지 도망하였다. 집안 사람들은 겨우 이튿날 새벽 2시에 정신을 차려 영등포서에 일어나 서장이하 비상소집을 하고 충동원하여 범인을 엄탐하고 충동원하여 범인을 엄탐하는 바이를 엄탐 중이다. 그날이 마침 주인아들의 생일으로 유식을 만드러 유쾌히 먹고 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이 침입하였고 현장에는 아무 증거품이 없고 상한 곳은 대퇴골 깊이 6센티 길이 4센티로 곧 영등포 홍승철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시흥 우와피 잡화상에 단도 3인조 강도침입

일가 5명을 결박 현금을 강탈

주인의 대퇴골을 자상

(영등포 지국전화) 작 25일 오후 11반경에 시흥군 북면 전대방리 우와피동 잡화상 한총삼 방에 3인조 강도 3명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양초를 달라고 하였는데 나가본즉 강도들은 길이 8촌 가량의 칼을 각각 빼여서 위협하다가 주인의 동생 관총이의 다리를 찔러 원편 다리에 중상을 입히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 아래 동생

▶ 1936.5.13(4)4

시흥 공보교 학년연장 운동

오래 전한 자작수민들이 일제에
여오는 시흥공립보통학교(始興公
립보통학교) 학년연장운동은 경비문제로
학교 예산이 부족하여 학부교과부
구성으로 당국이 친서리 신원을 여
증성의 원로들이 지원하는 바람에
여성들이 학교에 들어온 바인데, 저
난 그날에 유자소를 하여 그날에
작정을 했던 것 같았는데, 김우
근(金吾根)은 그날에 그 학교에
온 학생들이 종현강(宗熙江)에
여기 애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저 대체로 감기고 저 회화(회화)
여 가지 방식을 협의하고 중재
에서 남아 있었는 바, 연장학과로
전학위에 또 다시 주제에서 그 전
포에 열린 기념행사를 열고
이어서 당시의 선생들이 어려가지고
다시 날에 촉진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始興公學校

學年延長運動

시흥 공보교 학년연장 운동

오래 동안 지방주민들이 열망하여오는 시흥공립보통학교 학년연장문제는 경비문제를 구실로 당국이 쉽사리 실현하여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하야 군민의 불평이 지 못 높아 오는 터인데 지난 6일에 유지 조두희, 김철윤, 김신택, 김우근, 송현규, 안일순의 제씨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코자 회합하여 여러 가지 방침을 협의한 결과 종래에 적립하여잇는 학년연장자금 이천원외에 또다시 측석에서 2천5백여원의 기부금을 얻어 가지고 다시 당국에 촉진운동을 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 1936.5.20

영등포피의 기관실에 대화 기계의 발열에서 발화된 듯

손해액 약 6만여원

10일 오후 9시 10분 경 영등포 당산정조선피혁주식회사 기관실 아궁이에서 발화가 되어 영등포경찰서원 영등포소방대원이 출출동하고 경성소방대원까지 응원으로 11시경에야 겨우 진화하였으나 기관실과 공장 약 사백여 평이 전소되었다. 원인은 보일러의 발열에서 난 듯 하나 영등포서에서는 화공 20명을 불러다 엄중 취조중이라 하며 손해는 약 6만원 인데 신호일본해상 동양의 제회사에 4억9천4백여 원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한다.

水登浦皮革
機關室에大火
기계발열에자발화
損害額約六萬餘圓

▶ 1937.6.19(4)12

始興市出願

시흥군군민(始興郡民)은 시장폐지와
장차 통대문(通大門) 가족시장의
폐지설이 잇음을 기회로 알뜰과
보 강남발전에 알뜻을 두게 되어
유지의 열망과 훗진원제씨와 열
성주석 아래 지난 9일 이에 시흥
가축시장(始興畜產市場)의 가원을
도 당국에 제출하였다는데 일반은
이에 허가되었기로 근간 열망과 기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흥총시출원

(영등포)시흥군군민에서는 영등포 시장폐지와 장차 통대문 가족시장의 폐지설이 잇음을 기회로 알뿐외로 강남발전에 한뜻을 두게되어 유지의 열망과 당국직원제씨의 열성주석이라 지난 9일 이에 시흥가축시장 허가원을 도당국에 제출하였다는데 일반은 이에 허가였기를 근간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1937.6.19(4)

이불에서 돈 훔친 절도범 피제

영등포서 서 취조 중
(영등포) 시내 영등포정 423번지 전
전성일은 15일 부산에서 경영하여오
든 음식점을 고산모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 1070원을 가지고 시내 원정
을 것처 집을 구하였으나 합당한 자
리를 얻지 못하고 전기 주소인 소전
의 집을 세로 얻게되어 그 대금 120
원을 지불하고 잔금 1천여원이 든
지갑을 쳐 도모에게 주었든바 도모
는 이것을 이불 속에 네코 자개되어
엿든바 아침에 일어나 쳐는 밥을 지
러나고 남편 정일이는 이것에 인
식도 없이 이불을 뚫고 훔친 절도범
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대금 120원
은 이불 속에 넣은 것이다. 이불 속에
넣은 것을 발견한 정일이는 남편
에게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이 불 에 서 도 훔 친

窃 盗 犯 被 逮

永 登 浦 署 取 調 中

凶 案 記 論

【水登浦】 시내 영등포정(永登浦町) 민물마을(民木村) 전성일(前成日)은 15일 부산에서 경영하여온 훔친 절도범(窃盜犯)을 고산(嵩山)을 모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 120원을 지불하고 잔금 1천여원이 든 지갑을 쳐 도모에게 주었든바 도모는 이것을 이불 속에 넣은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쳐는 밥을 지러나고 남편 정일이는 이것에 인식도 없이 이불을 뚫고 훔친 절도범을 발견한 정일이는 남편에게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동자 이상선의 처 이공임(25)이가 이것을 엊어 가지고 자기 집 안방 장롱 속에 낸 것을 찾게 되엇는데 이에 추궁해야 수색증이라고 한다.

▶ 1937.6.20(4)7

시흥 농촌에 낭보

농형은 풍작예상
이양발육이 극양호
(영등포) 년내로 기후불순 관계로 농작물의 흉작이 계속 되여 시흥 수천 농민들은 고난한 생활상을 더한층 어렵게 하야 결국 농촌을 피폐하게 하였거니와 본래 순박한 농민들은 또 다시 용기를 내어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금년에나 하고 크다란 기대를 갖고 모내기와 기타 준비에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들이 저마다 힘을 다해 농경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힘들고 수고로운 일인 농경에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농민들은 힘들고 수고로운 일인 농경에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농민들은 힘들고 수고로운 일인 농경에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농민들은 힘들고 수고로운 일인 농경에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農 形 是 風 作 預 象
移 移 發 育 的 大 良 好

始 明 陽 生 時 也 務

農 事 活 动 有 期 待 良 好

農 事 活 动 有 期 待 良 好

▶ 1937.6.22조(8)7

始興麥作大豐

〔永登浦〕始興郡은 8個面을 가진 鄉리로서 前年凶旱로 因하여 一般農民들은 더욱 困窮에 처하여 잇는 바。今年에 이르자 一般農民들은 다시 그 希望에 抱負를 가지고 不徹晝夜 그耕作에 힘써온 터 더욱 今年麥作은 前年에 비하여 十一割增 平年에 비하여 四割五分增加하였음으로 一般農民들은 큰 기쁨에 있다고 한다.

시흥백작동

(영등포) 시흥군은 팔개면을 가진 순농촌으로서 전년흉년으로 인하여 일반농민들은 더욱 곤궁에 처하여 잇는바 금년에 이르자 일반농민들은 다시 그 희망에 포부를 가지고 불철주야 그경작에 힘써오든 터 더욱 금년백작은 전년에 비하여 십일할증 평년에 비하여 사할오분증기하았음으로 일반농민들은 큰 기쁨에 있다고 한다.

▶ 1937.6.24(4)

自作農逐年減少 小作、日傭은 激增

始興農村의 不況

【永登浦】 시흥군(始興郡)은 본 대농업지대로서 군당국으로부터 무년[개량을] 지도해야 오른다 많은은 발전과 개량을 보게되어 날로 그 성과를 이루고 있든 중이나 작년에 이르어 전년인 소화구년의 그것보단 농가호수가 네백여호의 감소를 보인 것은 통계가 말하

는 이상한 현상의 하나이라 할것이다. 더구나 자작농에 있어서 소화구년보다 11년에 백여호가 감소된것인데 반하여 자작겸소작과 로농자의 날짜군이 봇물을 늘어있는 것은 농가불황이라고 볼수 있다고 한다.

지작농축년감소
SPECIAL REPORT ON FARMING IN KOREA

소작 일용은 격증

▶ 1937.6.24(7)

【永登浦】 영등포의 공업은 최근에 와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매우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나 이 발전 그늘 속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면 일용물 가격 날로 등극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 그들의 품식은 불과 50전 내외로 최저생활보장도 안 되는 터로 곤란한 생활을 하는데, 로동시간은 최고 12시간이상의 과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매고 있는 로동자 수는 물여 1만여명으로 남자 장년은 50전 내외 여공은 40전 내외에 지나지 않는 터로 약간 그 이상 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불과하니 둘가가 최고 절정으로 오

物價高에 부다끼는 工場勞働者生活難

최저 생활유지조차 말이 못되어

永登浦勞働層에 夏鬱

를 묻요 지금 그들의 생활은 비참 하기 짜이 없다고 학당

에 있어 그들의 품식은 불과 50전 내외로 최저생활보장도 안되는 터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은 최고 십이시간이상의 과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매고 있는 노동자수는 무려 1만여명으로 남자 장년은 50전 내외 여공은 40전 내외에 지나지 않는 터로 약간 그 이상 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불과하니 둘가가 최고 절정으로 오르는 요즘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짜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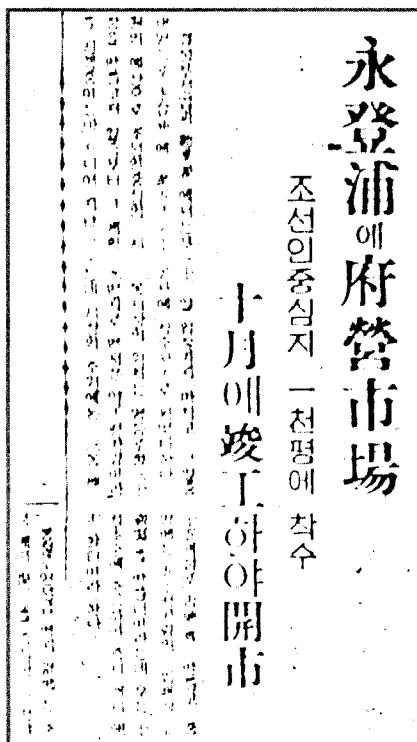
불가고에 부다끼는 공장 노동자생활난

최저 생활유지조차 말이 못되어

영등포 노동층에 우울

(영등포) 영등포의 공업은 최근에 와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있다고 매우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나 이 발전 그늘 속에서 허덕이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면 일용물가는 날로 등극하고있는 오늘

▶ 1937.7.27(2)



영등포에 부영시장

조선인 중심지 1천 평에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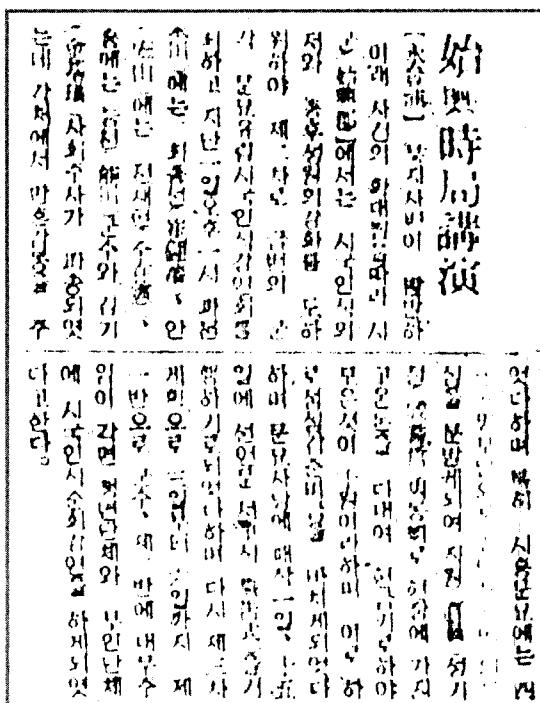
10월에 준공해야 개시

경성부 산업과에서는 부내 영등포에 1만5060원의 예산으로 조선인 중심의 시장을 만들 고저 일찍부터 그 계획을 진행 중이던 바, 드디어 지난 23일 입찰까지 미치고 근일중 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었다 한다. 동시장의 위치는 영등포구청 39 번지로 면적은 약 1천평 가량이라는데 시장의 주위에는 3동 15개 점포를 만들고 중앙에는 50평 가량의 입매장을 만들 것이라는 데 오는 10월 초순에 준공해야 즉시 개시 할 터이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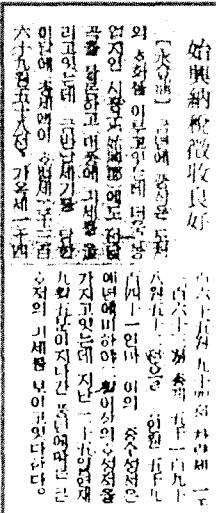
▶ 1937.9.4(2)

시흥시국강연

(영등포) 북지사변이 불발한 이래 사건의 확대됨을 따라 시흥군에서는 시국인식의 고저와 종후성원의 강회를 도하기 위하여 제 1차로 금번의 군내 각 문묘유림시국인식강연회를 개최하고 지난 일일 오후 한시 과천에는 최종선, 안산에는 전재현, 시흥에는 능천 군수와 김기활 사회주사가 파송 되었다는데 각처에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 하며 특히 시흥문묘에는 45명 모임으로 강연요지에 의문심을 분발케되어 직원 성기철씨 등으로 현장에 가지고 온 돈을 다니어 현금키로 하여 모은 것이 10원이라하며 이로 하로 점심값준비금을 바치게 되었다 하며 문묘사당에 매삭 일일 15일에 선언문 선고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다 하며 다시 제 삼차 계획으로 삼일부터 육일까지 제 1반으로 군수, 제 2반에 내무수, 제 3반으로 청년단체와 부인단체에 시국인식 순회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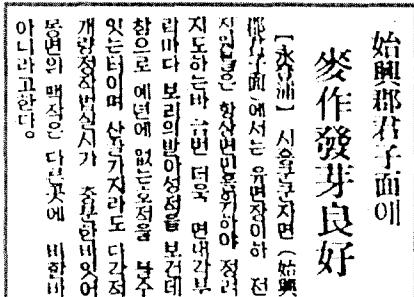


▶ 1937.10.28(7)3

시흥남세 징수 양호(始興 納稅 徵收 良好)

[영등포] 금년에 풍작은 도처의 호화를 이루고 있는데 더욱 농업지인 시흥군에도 전답곡을 물론하고 대풍에 과세를 물리고 있는데 금번 납세기를 당한 이 달에 총 세액이 호별세 일천삼백육십구원 오십팔전, 가옥세 일천사백육십오원 구십사전, 차량세 일천삼백육십삼원 총계 오천일백구십팔원 오십이전으로 총인원 오천구백사십일인바 이의 증수성적은 예년에 비하야 이할 이상의 호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이십오일 현재 구할 오분이 지나간 풍년에 따른 큰 호적의 과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 1937.11.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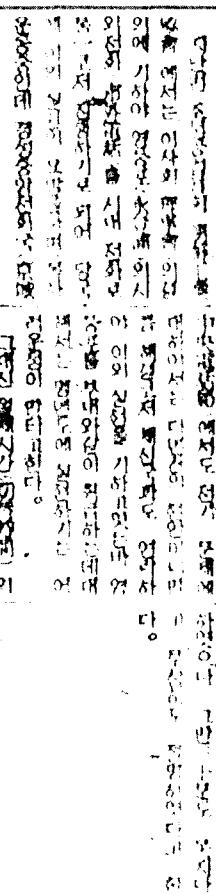
麥作發芽良好**시흥군 군자면에 맥작발아 양호(始興郡
君子面에 麥作發芽 良好)**

[영등포] 시흥군 군자면에서는 유 면장이하 전 직원들은 항상 면민을 위하여 정려 지도하는 바 금번 더욱 면내 각 부 림마다 보리의 밭이 성적을 보건데 참으로 예년에 없는 호적을 볼 수 있는터이며 산골가지라도 다각적 개량 정작법시가 충분한 바잇어 물면의 맥작인 다른곳에 비할 바 아니라고 한다.

▶ 1937.11.27(2)

永登浦電話는編入難

대후년도에나 산인이라도

代身切替時間短縮**영등포 전화는편입 난**

내 후년도에나 실현이 될 듯
대신 절체 시간 단축

지난번 조선공업협회에서는 이사회에 결의에 기하야 영등포의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통일코자 진행하기로 되어 당국에 이의 실현의 요망을 하며 목하 운동중인데 경성중앙전화국에서도 전기문제에 대하여서는 다년간의 협안이나 민족 해결코자 체신국과도 연락하야 이의 실현을 기하고 있는바 영등포를 부내와 같이 취급하는데 대해서는 명년도에 실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만하고 한다.

그 대신 절체 시간의 단축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로 되어 시외회선 3선과 교환대를 증설하여 이의 용화를 도모 하겠다는 뜻을 25일 조선공업협회에서 회답해 왔다 한다.

▶ 1937.12.1(8)

垈地料十割引上

借地人等不納決議

始興良才里借地人結束

【永昌浦】 시내서빙고역전 (西
冰庫驛前) 박모 (朴某)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 (始興郡新東面良才里)에 대지 (垈地) 몇천평을 금년에 처음으로 사게 되었다는데 동래에 징수하도록 공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가장 공정히 간평하였다고 하여 일반

작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최소 2활고, 최고 10활까지 늘리여 이는 공정이 아니라 당년에 금리를 뽑자는지 지내지 않는 수단이라하여 일반 직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전혀 불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저하개정이 없으면 동맹을 하는 동시 소작위원회에까지 진정을 상담하리라고 한다.

공정이 아니라 당년에 금리를 뽑자는지 지내지 않는 수단이라하여 일반 직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전혀 불

대지료 10할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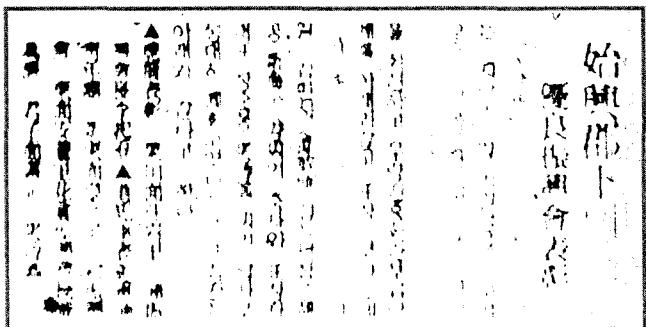
차지인등불납결의

시흥 양재리 차지인 결속

(영등포) 시내서빙고역전 박모 시흥군 신동면 양재리에 대지 몇 천평을 금년에 처음으로 사게 되었다는데 동래에 징수하도록 공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가장 공정히 간평하였다고 하

야 일반직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최소 2활고, 최고 10활까지 늘리여 이는 공정이 아니라 당년에 금리를 뽑자는지 지내지 않는 수단이라하여 일반 직인들은 크게 분개하고 전혀 불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저하개정이 없으면 동맹을 하는 동시 소작위원회에까지 진정을 상담하리라고 한다.

▶ 1938.2.14(2)10



시흥군하이우량진흥회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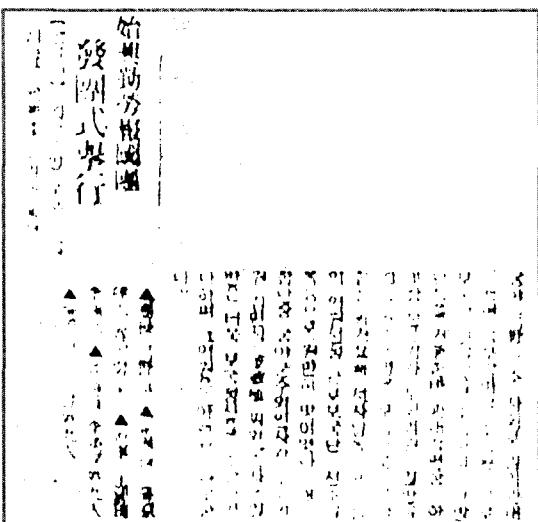
(영등포) 시흥군에서는 지난 11일 모임을 기하여 오후 모시 등 군청 회의실에 군내 진흙회간부 관계 유지제씨 수십명을 회견하고 우량진흙회 간부급 단체를 아래와 같이 표창 하였는데 모모모모모모모모김모 경찰서장 모 모양씨의 축사와 표창자 대표 장모모씨의 답사로 성대히 폐회하였다는데 표창자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A decorative horizontal border consisting of two rows of small, square, hollow-headed pins or studs, arranged in a repeating patter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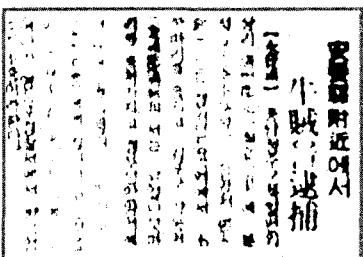
시흥 균로보국단 발단식 거행(舉行)

(영동포) 지난 3월 오후 1시 시흥군 회의실에서는 궁야 군수 사회로 임의관내 삼백여 각 부탁마다 조직된 근로보국단 연합단을 조직하고 그 발단식을 거행한바 관내 각면장, 학교장, 신문기자, 도회의원, 일반 유지 등 5·60명에 모임으로, 국가 합창 환거 요배 서사님독 삼박 규약 심의 역원선정 근로보국단 신조나눔 등으로 원만히 마치었다는데 연합단장 궁야 군수의 인사와 도회의원 김민식씨의 축사에 일반인들은 더욱 보국정신을 조장하였다 하며 그역원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 1938.8.5(4)6



► 1938.8.31(4)4



시흘역 블루에서 유품을 체포

(영등포) 충남 청주군 북일면 입상리에 본적을 둔 주소 부정의 장영식은 경의선 능곡역에서 소 한 마리를 훔치고 김포군 양동면에서는 닭 5마리를 훔쳐 가지고 경부선 인양역에서 부내 노량진정 48번지 이희운에게 팔려고 하는 것을 안양주재소 김순시가 체포하여다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방금 엄중히 취조 중이라 한다.

▶ 1938.12.3.(2)3

시흥보도면도리리 903번지 삼전구차랑 방에 2일오전 바지를 입은 노동자풍의 이십칠세 가령의 괴한이 침입하여 주인에게 단도를 겨누고 돈을 강요해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들었던 단도로 주인부처의 얼굴을 찌른다음 도망하였다. 이집트에 점령되었던 노동자풍의 이십칠세 가령의 괴한이 차량방에 침입하여 주인에게 단도를 겨누고 돈을 강요해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들었던 단도로 주인부처의 얼굴을 찌른다음 도망하였다. 이집트에 점령되었던 노동자풍의 이십칠세 가령의 괴한이 차량방에 침입하여 주인에게 단도를 겨누고 돈을 강요해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들었던 단도로 주인부처의 얼굴을 찌른다음 도망하였다. 이집트에 점령되었던 노동자풍의 이십칠세 가령의 괴한이 차량방에 침입하여 주인에게 단도를 겨누고 돈을 강요해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들었던 단도로 주인부처의 얼굴을 찌른다음 도망하였다.

始興에 短刀強盜

主人夫妻亂刺

各地에 犯人을 手配中

시흥보도면도리리 903번지 삼전구차랑 와디(사진제작자)

시흥에 단도강도

주인부처남자
각지에 범인을 수배중

시흥군북면도리리 903번지 삼전구차랑 방에 2일오전 바지를 입은 노동자풍의 이십칠세 가령의 괴한이 침입하여 주인에게 단도를 겨누고 돈을 강요해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자 들었던 단도로 주인부처의 얼굴을 여러곳 찌른다음 도망하였다. 이급보에 접한 소관영등포경찰서에서는 비상활동을 개시하고 경기도경찰부를 통하여 각지에 범인 수배중이다.

▶ 1939.5.8.(3)7

시흥에 강도출현

始興에 強盜出現

金盜主逃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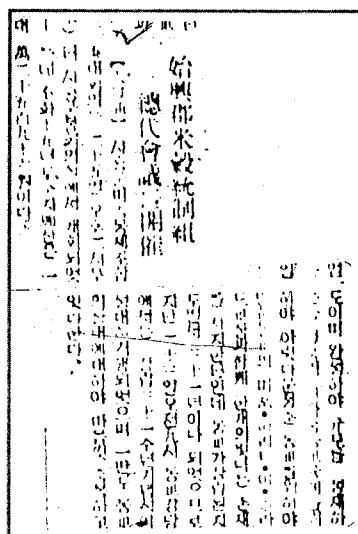
금품을 강탈코 도주

5월 6일 오후 10시 15분 사람이 잡든 틈을 타가지고 기리 5치나 되는 단도를 가지고 60여 원의 현금의 강탈 도주한 강도가 나타났다.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잠곡리서 암집업을 하고 있는 고령선 씨 집에 키가 5척 1촌, 나이가 20세 가령 되어 보이는 강도가 6일 밤 10시 19분 경에 그 집 부엌 뒷문으로 들어와서 주인 고씨의 딸 정자양의 침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단도를 번뜩이며 돈을 내라고 협박하여 50전 지폐 60매, 전매통화 11원 그 외 십원 도합으로 여원을 강탈 해 가지고 어디로 인지 출행랑을 쳐버렸다. 각 경찰서에서는 수배중이다.

▶ 1939.5.16(2)6



▶ 1939.10.27조(4)2

**시흥강도수체포 도박마친의 조들이 범행동기**

용산서에서 취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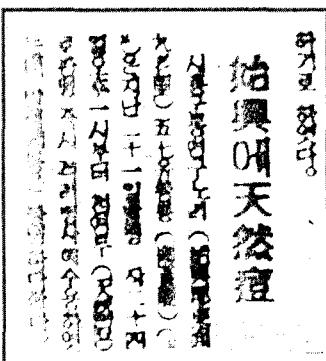
지난 10일밤 11시 반경 시흥군 신동면 염포리 염택의 집을 비롯하여 고교, 대평 집을 침입한 대담무상한 강도는 발생이후 영등포경찰서는 물론, 용산서와 기타부내 각 경찰서에서 범인 체포에 맹 활동을 개시한바 드디어 4일만에 체포되고 말았다. 14일 오후 9시경 부내 삼각지 파출소순사 2명이 한강동 13번지 앞을 순찰할 때 수상한 청년이 지내가므로 불심 심문을 한 결과 현장에서 금시계가 나오고 그 후에 그의 유일한 증거인 원편 손 엄지 손가락이 잘라진 점을 발견하고 즉시 본서로 일리어 취조한 결과 강도범을 체포 한 것이다. 그는 이태원정 388번지 장은산으로 철공직공 노동을 하는데 3년전부터 도박에 빠져 들어 후 돈에 굶주리고 채금 ■■심■고 하여 그와 같이 강도짓을 하게 된 것이라 한다. 그에 따라 앞으로 여죄가 상당들어날 모양.

시흥군 미곡통제조

총대회의를 개최

(시흥) 시흥군 미곡 통제조회
총대회의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흥군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는데 소화 15년도 수지예산은
1만2천5백9십6원이다.

▶ 1940.1.26(2)5



시흥에 천연痘

시흥군 동면 구노리 57 유황통은 지난 21일 발병 작 24일 오후 1시부터 천연痘로 판명 즉시 격리병자에 수용 하였는데 발생계통은 불명하다한다.

▶ 1940.2.20

【永登浦】기보=금번의 강설로
말미암아 송전고장 배전제한등판
계로 영등포 각동장은 취업상태
이엇든바 작일 오후 8시부터 정상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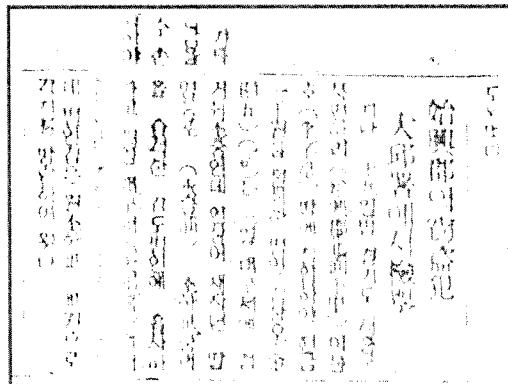
永登浦의 각工場
平常대로復舊
十六日午後八時부터

영등포의 각 공장

평상대로 복구
16일 오후 8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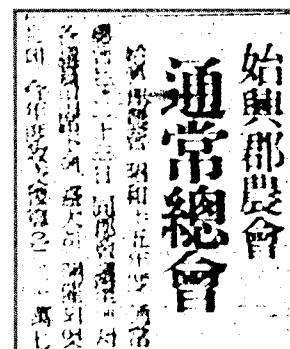
(영등포) 기보=금번의 강설로 말미암아 송전고장 배전 제한 등 관계로 영등포 각 공장은 취업 상태이었던 바 작일 오후 8시부터 정상회복 되었다.

▶ 1940.3.5조(2)5

**시흥군의 절도범 대구서 검거**

지난 29일밤 경기도 시흥군 북면 하리 이불호방에 침입하여 현금 1천원을 절취한 범인 김상오는 3일 대구서에 검거 취조중인데 인상이 재작년 말 영등포 소학교장 택을 습격한 강도범인에 혐의를 두고 있다. 4일 대구서에서 경성구내 각서에서 조회가 있엇는데 범인 김은 원소학교 교원으로 각자를 빙狼하여 왔다.

▶ 1940.3.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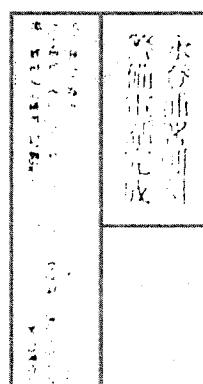
**시흥군농회**

통상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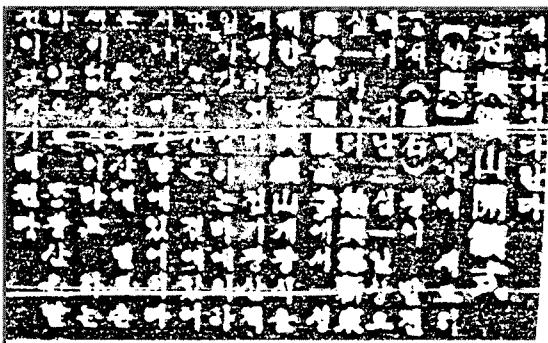
▶ 1940.4.20

영등포서에서 경비 전화 완성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작년이래 각 관내 각 주재소 경비전화 기설을 위하여 공사 진행 중이던 바 작 18일로써 그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제는 어느 주재소에나 경비전화 없는 곳은 없게 되었으나 이로써 경비통화의 □□□를 기하리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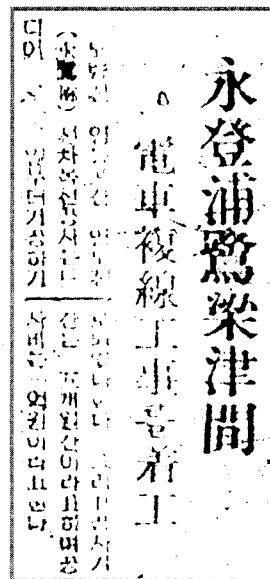


▶ 1951.1.3



관통광산 개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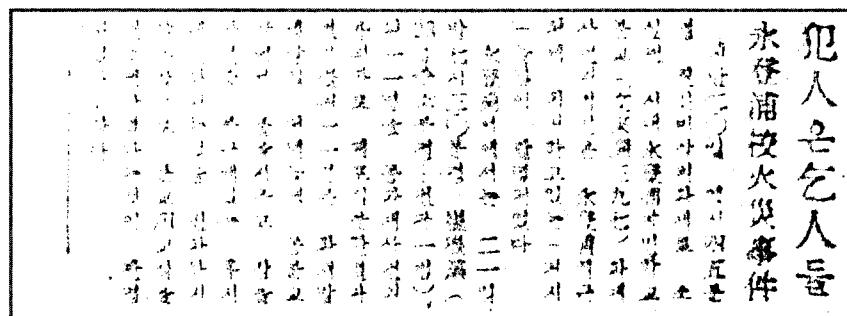
▶ 1950.5.22(2)5



영등포 노량진간 전차복선공사를 착공

노량진 영등포간 전차복선공사는 드디어 21일부터 기공하기로 되었다한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5개월간이라고 하며 공사비는 2억 원 이라고 한다.

▶ 1959. 9. 22(3)9



영등포교 화재사건 범인은 결인들

지난 20일 10시 45분 경 신원미상의 화재로 소실된 시내 영등포(永登浦)초등학교 분교 화재 사건의 범인은 영등포역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거지」들임이 판명되었다. 영등포서에서는 21일 밤 7시 30분 경 최■■(23 전과 일범)와 11명을 동 화재사건의 용의자로 체포 심문한 결과 전기 최 외 11명은 화재발생당일 저녁 늦게 동 분교장에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자던 중 부근에 있는 휴지에 인화되는 것을 진화하지 않은 탓으로 분교 4 교실을 전소케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